月刊 등불

www.tongdosa.or.kr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지입니다.

TONGDOSA
영축총림 통도사

MARCH 2016
Monthly Magazine vol. 412

글. 사진
통도사 성보박물관

「강희이십오년」명 통도사 동종
「康熙二十五年」銘 通道寺 銅鐘

조선후기 1686년

銅 / 높이 146.2cm / 보물 제 11-6호

강희 25년(1686)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인 사인비구思印比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시대 종이다. 원래 통도사 범종각에 걸려 있었으나 현재 성보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사인비구는 18세기 뛰어난 승려이자 장인으로 전통적인 신라 종의 제조기법에 독창성을 합친 종을 만들었다. 현재 그의 작품 8구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전해지는데, 그 중 본 동종은 하부下部에 팔괘八卦문양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대종으로서 형태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 몸통의 사각형 연곽 안에 9개의 돌기가 있는 것에 비해, 이 종은 중앙에 단 한 개의 돌기만 넣은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신라 범종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음통이 있다.

종의 윗부분에는 범자가 2단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 4개의 연곽, 안에는 9개의 연판이 새겨져 있으며, 4개의 연곽 사이에는 보살상을 배치하였다. 또한 3단으로 명문이 양각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팔괘가 보인다.

이 범종은 명문기록에 의해서 강희 25년(1686)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주종鑄鐘장인과 200여 명에 달하는 시주자를 통하여 당시 사회 경제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 범종은 17세기 후반까지 지속되는 신라 범종 양식과 조선 범종의 절충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번지 TEL. 055-382-1001 FAX. 055-384-0030

천년의 향기가
숨쉬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병신년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발원합니다.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입재 2016. **4. 11**(음 3.5) ~ **회향** **4. 13**(음 3.7)

장소

통도사 금강계단 전계 대화상 중산 혜남

동 참 금 5만원 (새마을금고 6269-09-005031-0 예금주 통도사)
차량안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앞 - 오전 8시 ~ 9시
접 수 처 화엄전 055) 381-1288 팩스 055) 372-7010
문 의 처 통도사 종무소 055) 382-7182

TONGDOSA

통도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입 문 반

불교입문, 천수경

오전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2:00
오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01:00 ~ 03:00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12:00

■ 본 과 반 / 입문반 수료자 대상

불교개론, 부처님 생애

수요반 : 매주 수요일 오후 01:00 ~ 03:00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01:00 ~ 03:00
졸업조건 :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졸업 후 포교사 고시 응시 가능

■ 경 전 반

보현행원품 / 도암스님
법화경 / 신공스님
우바새계경/ 덕문스님

매주 목요일 오후 01:00 ~ 03:00
매주 금요일 오후 01:00 ~ 03:00
매주 토요일 오후 02:00 ~ 04:00

- 입 학 식 : 2016년 3월 2일(수),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
- 접수기간 : 2016년 3월 말까지(선착순 100명 마감)
- 구비서류 : 사진 2매(3*4cm), 입학원서(통도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종무소 배부)
- 수 업 료 : 25만원(1년 과정), 교재비 별도
- 문　　의 : 종무소 불교대학 담당 / ☎ 055.384.8380, 055.382.7182
- 참　　고 : 최소 30명 이상 수업진행
  두 강좌 이상 수업 신청 시 할인혜택
  수업료 환불은 개강 후 15일 이전까지 가능

목차

02 통도사 성보

「강희이십오년」명 통도사 동종「康熙二十五年」銘 通道寺 銅鐘

08 방장스님 을미년 동안거 해제 법어

오늘 대중은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는 해제날입니까?

10 선어록 강좌

덕산선사의 탁발

14 마음으로 읽는 불교문화

불교와 수묵화

16 새롭게 읽는 삼국유사

가야의 첫 황후는 인도공주님 아유타야국 허황옥

20 향성

香聲

22 등불화보

성해스님 · 혜각스님 추모다례

새해 맞아 일주문 앞 소원지 발원

정초기도회향 및 신중기도입재

불교대학 · 선다회 졸업식 및 신행단체 시상식

율원 · 강원 졸업식

불기 2559년 을미년 동안거 해제 법요식

29 산문 밖 이야기

3월의 이야기 '입학'

38 사찰 속 공양간을 가다

비구니 제일도량 가지산 석남사

43 그림으로 본 부처님

천수천안관세음보살

44 새롭게 조명한 인도불교사

인도 불교의 역사 _인도사상의 특징과 흐름(3)

50 등불의 세계여행

세계의 지붕 티베트

55 경전 산책

재가 계율의 보고寶庫 -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58 영축환경칼럼

사찰에너지 어떻게 할 것인가?

62 **산내 암자 소식**
축서암 대웅전 상량식

64 **종립학교, 그 캠퍼스를 찾아서**
청도 이서중 · 고등학교

68 **말사 탐방**
울주군 두서면 죽림정사

72 **산하기관_** 어린이집 소식
나도 이제 형님이 되었어요

74 **원상스님이 들려주는 '이 공양'**
두부豆腐

76 **건강칼럼**
춘곤증春困症을 예방하는 냉이 차

78 **영축소식**
통도사 / 박물관 / 자비원

82 **신행수기**
선인장에 꽃피우기

86 **편집후기**

청매, 홍매,
그 중 으뜸은 자장매입니다.
'율律'의 근본도량 통도사에
상승의 봄 손님 오셨습니다.

월간 등불 1990년 9월 28일 등록. 2016년 3월 5일 발행(통권412호)
발행인 겸 편집인 향전 영배
편집주간 도문
편집장 선본
편집위원 진각 진응 정진
회계 안은경
발행처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 384-8380 팩스 055) 382-7196
취재 · 사진 김윤희 김정은
기획 ·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18 동광빌딩 2F
전화 051) 255-0263 팩스 051) 255-0953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글.
원명지종대종사 영축총림 방장

오늘 대중은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는 해제날입니까?

大悲千眼淨無瑕(대비천안정무하)여 **特地拈花大老婆**(특지염화대노파)라
摩竭昔年迦葉笑(마갈석년가섭소)러니 **現今誰是好禪陀**(현금수시호선타)리오

대자비 천안은 청정해 티가 없음이여!
특별히 간절한 노파심으로 꽃을 드셨네.
마갈의 영산회상에서는 가섭이 미소 지었다는데
지금은 누가 있어 선타객이 되겠는가?

부처님께서 6년 수행정진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식들에게 묻고 배워도 풀리지 않는 한 가닥 의심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드디어 생사를 건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샛별을 보고 생사근본의 이치를 깨우치셨으니 그날이 납월 팔일입니다.
이 날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무명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부처님의 해제 날입니다.
이 자리의 수행자들에게는 정월 보름 오늘이 바로 해제 날입니다.
각자가 화두 하나를 굳게 들고 망상의 유혹과 씨름을 했습니다.

근원도 없는 번민은 까마득한 언덕도 되었다가 깊은 수렁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땐 잠깐의 희열을 느끼게 하다가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념의 골짜기로 몰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의 모진 추위를 맨 몸으로 견뎌 낸 소나무처럼 그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자신들만이 알 것입니다.
결판을 낸 사람은 청량산을 먹은 것처럼 가슴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시가 걸린 것 같을 것입니다.
그 옛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드심에 가섭이 미소 지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른 이의 분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끄덕일 때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를 준비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자에겐 견성이 장원급제요 해제입니다.
오늘 대중은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는 해제 날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가 용맹심을 내어 온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려 한다면 먼저 높고 험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화두를 드는 것은 인내하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줄이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올라야 합니다.
망설이거나 멈춰서면 번민의 두려움은 더욱 거센 불길이 되어 치솟아 오릅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일념의 화두가 견고한 갑옷이라는 믿음이 섰다면 서슴없이 뛰어내려야 합니다.
소요자재는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총명함을 믿고 이치만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정진은 중생이라는 깊고 깊은 우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끈입니다.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수행자가 정진의 끈을 굳세게 하지 못하고서는 헛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다져 나가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무명의 눈으로 저 허공을 바라보며 공허를 느꼈다면 오늘은 천진의 텅 빈 눈으로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광활함을 보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十方同聚會(시방동취회)여 **皆皆學無爲**(개개학무위)라
此是選佛場(차시선불장)이니 **心空及第歸**(심공급제귀)어다

시방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모두가 무위의 이치를 파고드네.
이 자리는 부처를 가려내는 곳이니
마음을 비워 급제해 돌아갈 지어다.

글.
법산 통도사 선덕, 동국대 이사

禪語錄

덕산 선사의 탁발

無門關 第 13則 德山托鉢

德山, 一日托鉢下堂 見雪峰問 者老漢 鐘未鳴 鼓未響 托鉢向甚處去.

山便回方丈. 峰擧似巖頭.

頭云 大小德山 未會末後句.

山聞. 令侍者. 喚巖頭來.

問曰 汝不肯老僧那. 巖頭密啓其意.

山乃休去. 明日陞座. 果與尋常不同.

巖頭至僧堂前. 拊掌大笑云 且喜得老漢, 會末後句. 他後天下人 不奈伊何.

無門曰

若是末後句 巖頭 德山 俱未夢見在.

撿點將來 好似一棚傀儡.

頌 曰

識得最初句 便會末後句

末後與最初 不是者一句

번역

덕산 선사가 하루는 발우를 들고 공양간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설봉이 물었다.
“노스님 종도 울리지 않았고 북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하니,
덕산 선사는 곧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설봉이 암두 스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 암두 스님이 말하기를 “그러게 덕산 선사도 아직 말후구(궁극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셨나.”
덕산 선사가 이 말을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스님을 불러왔다.
덕산 선사가 암두에게 묻기를, “자네가 이 늙은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암두가 덕산 선사에게 그의 뜻을 살짝 귓속말로 전했다.
그러자 덕산 선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다음 날 법상에 앉으시더니 과연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암두가 승당 앞에 이르러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기쁘다 덕산 큰스님이 말후구를 아셨으니, 앞으로 천하 사람들이 어떻다 말하지 못 할 것이다.”

무문 스님이 논평하였다.
만약 이것이 말후구라 한다면, 암두와 덕산 이 두 사람이 다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네.
가만히 점검해 보면 마치 한 무대에서 놀고 있는 꼭두각시 인형과 같으리라.

게송으로 노래했다.

최초구를 알면 곧 말후구를 알겠지만
말후구와 최초구는 한 구가 아니네.

해설

덕산선감德山宣鑒 782-865은 육조혜능六祖慧能 - 청원행사靑原行思 - 석두희천石頭希遷 - 용담숭신龍潭崇信으로 계승된 법맥을 이은 제자이다. 『금강경』에 정통하여 특히 금강경청룡초金剛經靑龍鈔를 지고 다녔다. 성이 주周씨라 주금강周金剛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금강경』에 정통하였다.

본래 사천에서 수행하다가 호남, 강서에서 선수행이 유행하여 '바로 사람의 마음을 참구하여 성품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直指人心 見性成佛)'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찾아 혼내 주려다가 절 밑에서 호떡장사 노파를 만나 시장기를 면하는 간식點心을 하려다가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고 했는데 '스님은 어디에다 점을 찍으려(點心)하느냐?'는 물음에 막혀 그동안의 교학적 수행 관념이 일시에 사라지고 용담으로 숭신崇信 선사를 찾아 제자가 되어 선종의 지도자로 덕산의 방棒을 제시하여 임제의 할喝과 조계선의 양대 준령이 되었다.

설봉의존雪峯義存 822-908과 암두전활巖頭全豁 828-887은 함께 덕산 선사의 법을 이은 제자다. 설봉은 당시 전좌典座 소임을 맡고 대중의 공양과 산림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었다. 덕산 선사가 종이 울리기 전에 바루를 들고 공양간으로 내려가다가 설봉을 만나 도로 방으로 돌아간 것과 설봉이 암두에게 전하자 암두가 "그러게 덕산 선사도 아직 말후구(궁극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셨나." 하는 등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은 설봉의 수행과정을 가늠한 덕산 선사의 선기禪機로써 제자의 중생심의 철벽을 일망타진하고 자성의 반야지혜를 활짝 펼치는 최후의 어구가 된 것이다.

무문 선사는 이에 대하여 마치 꼭두각시 놀음이라 하여 사정없이 논평하였는데 이것은 이러한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질책이다.

형식이나 사유에 구속되어 고착되거나 휘둘리면 자기 본성을 어지럽히고 더 미혹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계의 채찍이다.

게송에서 최초구를 확연히 깨달아 알면 말후구를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최초구가 곧 말후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안다면 역시 안다는 식견識見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작과 끝이 같은가 다른가?

같다고 해도 30방이요, 다르다고 해도 30방일세.

그럼 어떡하지?

그냥 가면 뒤질줄 알라.

통도사에서
미디어 홍보팀(불자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미디어를 통한 불교홍보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홍보팀 교육과정을 무료로 수강하시면서
불자기자로서 거듭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격: 취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신청방법: 기획국(종무소) 직접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또는 통도사 홈페이지(www.tongdosa.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발송(plantongdo@naver.com)

교육일정: 3월 5일~5월 7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문　　의: 통도사 기획국(종무소) 055-382-7182

영축총림 통도사
TONGDOSA

글.
도일스님 전. 송광사 율원장

불교와 수묵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의 사상과 풍습이 더해져서 풍성한 문화를 낳았다. 그 가운데서 그림에 대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동양의 대표적인 그림인 산수화의 기원부터가 불교적 영향 아래서 탄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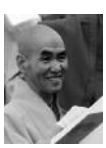
인물화의 배경으로만 그려졌던 산수山水가 진晋의 종병宗炳에 의해 비로소 독립된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종병은 여산 동림사에 주석한 혜원慧遠스님의 재가 제자로서 스님의 지도에 따라 당시의 여러 유명한 사대부들과 함께 극락세계에 나기를 발원하며 정업淨業을 닦았다.

종병이 나이가 들어 명산대찰을 다니기가 힘들어지자 자신이 순례했던 천하의 명산을 그려 사방 벽에 걸어두고 그 가운데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지냈는데, 이것이 곧 산수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종병 이후에도 독실한 불자로 유명한 남종화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왕유王維의 산수화도, 불교적 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왕유는 먹의 농담만으로 산수를 그렸는데 이것이 중국의 지식인들의 취향과 결합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와 일본으로까지 이어왔다.
중국의 화가 중에서 송대宋代의 마원馬遠과 하규夏珪의 그림은 힘차고 야성적인 필법으로 선종禪宗의 취향과 잘 어울려 뒷날 유사한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설주雪舟스님과 같은 뛰어난 작가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산수화는 명나라 말기의 네 분의 스님들에 의해 개성강한 정신을 표출하는 방편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석도石濤스님과 팔대산인八大山人은 특히 유명하다.
불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선종禪宗은 매우 강한 중국적 취향을 담고 있다. 선종이 그림에 끼친 영향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송대에 유행한 선禪의 바람은 사대부들의 예술 풍토에도 변화를 주었던 것이다.
소동파蘇東坡를 위시한 지식분자들의 작품과 목계牧溪, 옥간玉澗 등 선종 취향의 화가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의 그림 주제들은 산수뿐만이 아니라 인물이나 화조도 같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수묵水墨을 이용하고 농담濃淡의 강한 대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표현을 극대화 하였다.

당의 오대조사五代祖師인 홍인弘仁스님이 그의 방문 앞에 그림을 그려 넣으려다가 제자들의 깨달음을 시험하는 게송을 쓰게 했다는 육조단경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스님들 방벽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더러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의 직지인심直指人心, 즉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군더더기 없는 수행법이 장식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간략한 필법으로 주제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결합하여 선禪畵 혹은 선화禪畵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는 이러한 류의 그림이 있는데 그 수량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그림 그리는 풍토가 아니어서 남겨진 작품이 거의 없고 일반 화가나 사대부 역시 크게 선종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드러낼만한 것이 적다. 그러나, 한시각韓時覺 이징李澄 김홍도金弘道 김명국金明國 등의 화가들이 선화의 특성이 엿보이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특히, 조선 말기의 김정희는 그의 대표작인 세한도歲寒圖와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등에서 강한 선종적 취향을 보이고 있다.
직업적 화가나 혹은 여가로 그림을 그렸던 사대부도 어떤 경로든 불교를 가까이 한 인물들은 일필휘지로 선화류의 그림을 남기고 있다. 선화는 가끔 남종화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선화는 보다 간략하면서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라 하겠다.



도일 스님
1973년 양산 미타암에 입산, 1975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7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태국 왕립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을 지낸 스님은 통도사 취운선원, 부산 보광사 등에서 운수납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은 4월3일부터 매월 음력 15일마다 부산 당리동 관음사에서 정토 법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가야의 첫 황후는

인도공주님
아유타야국 허황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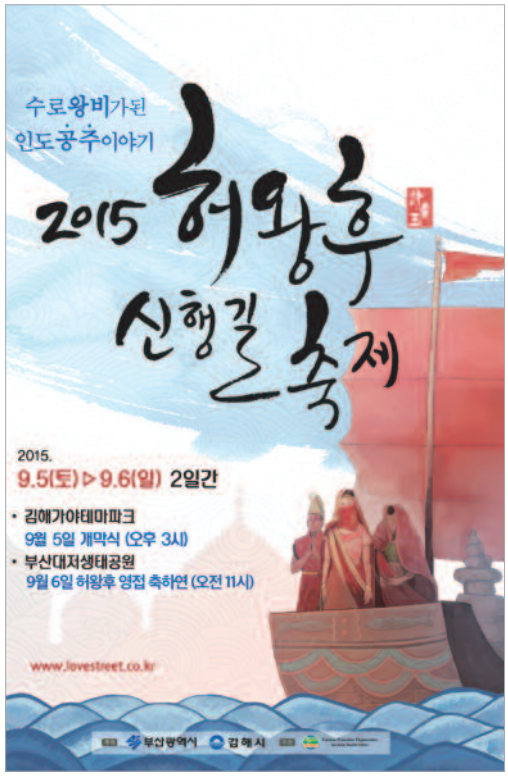
연상연하 커플의 원조,
당당한 그녀의 카리스마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허황옥이 죽은 후 수로는 세상에 없는 열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왕비 없는 10년동안 독수공방하며 베개를 안고 눈물로 지새우다 199년 3월 23일 158세로 세상을 떠난다. 나라에서는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1월 3일 7일, 5월 5일 단오, 8월 5일, 15일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데 마지막 9대 왕 구형왕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황옥처럼 수로왕을 기리는 행사가 있었으니 모두 황옥과 관련된 가야식 올림픽의 개막이다.

내용인즉슨 매년 7월 29일 황옥이 오던 날 마을사람, 말단공무원, 군인들이 승점乘帖에 장막을 치고 음주가무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특히 백미는 동쪽과 서쪽으로 건장한 장정들이 두 패로 나뉘어 하는 올림픽 시합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 망산도望山島에서 말타고 육지를 향해 달리기. 이것은 허황옥의 출현을 수로왕에게 알리는 경기이다.



둘째 배를 띄워 물 위로 밀며 북쪽 고포에 먼저 닿기 시합. 이 경기는 허황옥이 비단바지를 벗어 폐백 드리던 별포로 목란과 계수나무로 노저어 마중가는 게임일테고… 셋째 유천간과 신귀간이 허황후 도착 소식을 수로왕에게 알리기 마라톤이다.

2014년부터 부산과 김해에서 '허황후신행길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올림픽을 재현하는 내용은 안 보인다. 이왕이면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던 맥을 이어 원전에 충실한 가야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면 어떨까.

그밖에도 가락국기에는 숨겨진 다빈치 코드들이 많다. 예를 들면 수로왕의 이름 '수릉'과 단오의 우리말인 '수릿날'에 '수로'왕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다. 수로와 단오의 유래가 겹쳐져 있을 관련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가락국기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김해와 부산지역에는 허황후와 수로왕, 허황옥과 함께 왔다는 그의 오라비 장유화상, 불교와 차의 전래 등에 관한 유적지가 많다. 초야를 보냈다는 명월사였던 현재 부산 흥국사, 파사석탑을 싣고 바다를 무사히 건넌 것을 감사하기 위해 지었다는 해은사, 장유화상이 지었다는 김해 신어산 은하사와 2대 거등왕이 부모를 위해 지었다는 부은암, 모은암, 수로왕의 다섯째 아들이 지었다는 김해 봉하마을 자은암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가락국기에 실린 왕후사와 장유사에 깃든 흥망성쇠의 아이러니도 되짚어 보아야 할 일이다. 두 절의 창건은 500년 정도의 거리가 있다. 먼저 왕후사는 8대손인 김질왕이 452년에 수로와 황옥이 결혼한 신행터에 세운 절이고, 장유사는 952년 정도 즉 고려시대에 왕후사 근처에 세워진 절이다. 문제는 나중에 세워진 장유사의 경계 안에 들어있는 왕후사를 장유사의 승려들이 곡식창고와 마굿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유타국 오누이를 기리는 절의 말로가 안타깝다. 가야와 신라의 멸망 위에 선 고려의 위세를 과시하는 모습일까.

21세기에도 만나기 어려울 법한 당찬 소녀 허황옥은 수로에게 하늘에는 땅이 있어야 하고 해에게는 달이 있어야 완전한 한 쌍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배필이자 남녀평등의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두 아들만큼은 자기의 성씨인 '김해 허씨'로 삼아 후손을 이어간 것이다. 우리는 최근에서야 엄마의 성을 자식의 성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삼국유사 속 여인 허황옥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타당한 자기의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또 하나 가락국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교의 연대기를 훨씬 올려야 할 기록들이 보인다.

삼국유사 탑상편 금관성 파사석탑 조에는 허황옥이 가져온 파사석탑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공주가 부모의 명에 따라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에 되돌아오니 파사석탑을 실어 보내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는 수로와 황옥의 치세 150여년동안 그때에는 아직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탑은 바다의 풍랑뿐 아니라 왜구의 침입도 막아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가락국기조에 43년 궁궐터를 정하면서 16나한이 살 만한 터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서기 44년경에 왕의 자리를 노리고 나타난 탈해와의

겨루기에서도 석가보 등에서 보이는 둔갑술 경쟁도 이미 전형적인 불교식 이야기이다.

우리는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의심치 않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속에는 이처럼 불교 전래를 300여년이상 올릴 수 있는 기록들이 편린으로 박혀 있다. 이 또한 불교국가 인도 아유타야 공주와의 관계에서 풀어 나가야 할 우리 불교 역사의 실마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는 가락국기조 하나만으로도 세계기록유산이 될 만하다. 가야의 역사가 그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는 지금 조선왕조실록에 버금가는 가야왕조실록이 실려있는 유일한 세계의 기록유산이기 때문이다.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문학박사(석보상절 주제)
철학박사(삼국유사 주제)

글. 그림
수안스님 문수원

香聲

오솔길 걷다

길섶에 놓인

빈병에

꽃가지

하나에도

행복이 대롱대롱

매달렸다

동면에 든 후학들에 열반으로 일침 가한 영축산의 어른 스님

성해스님·혜각스님 추모다례 이어져

근·현대 영축산의 가장 큰 어른이셨던 성해 노스님의 추모다례가 지난 2월 5일 본사 설법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열반 89주기를 기해 봉행된 노스님의 추모다례에는 방장 원명지종대종사, 성파대종사를 위시한 어른스님들과 주지 영배스님, 강주 현진스님, 선덕 법산스님, 선원장 영일스님 등 사중을 대표하는 스님들과 산내 암자와 각 말사의 스님들이 대거 참석하여 노스님의 생전 수행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2월 9일에는 현대 불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일옹당 혜각대선사의 추모다례가 사명암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다례재에는 감원이자 스님의 시봉인 동원스님과 전 주지 원산스님, 무애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문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원장 영일스님의 죽비 삼창으로 스님을 추모하는 예를 갖추었습니다.

성해 노스님의 상좌로는 구하, 경봉, 경하스님이 계시며 통도사의 전 대중은 성해 노스님의 후손입니다.

통도사는 사중을 참배하는 참배객들과 여러 불자님들의 새해 소구소원을 작성, 발원하는 새해 소원지 발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소원지 발원문은 일주문 앞 12지신상 앞 소원지 장독에 넣어 저마다의 원을 기도, 발원하는 행사로 지난 음력 설날부터 보름간 실시했습니다.

"발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참회합니다."

새해 맞아 일주문 앞 소원지 발원 이어져

열 두 동물의 띠별 석상을 일주문 앞에 모시고, 그 앞에 띠 그림이 새겨진 장독을 두어 저마다의 소원을 적어 넣게 되는데 가족 단위로 통도사를 찾는 참배객들에게는 각자의 소원을 적고 가족끼리 발원을 해 주거나 덕담을 건네는 풍경도 목격되었으며, 연인끼리 혹은 도반들과의 한때를 보내기 위해 사찰을 방문한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축원을 하는가 하면, 소원지를 넣으면서도 지극한 합장의 예를 다하는 모습이 아주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 지은 허물을 참회하는 소원지도 눈에 띄었는데 참회의 소원지 역시, 회광반조의 기회를 제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본마음 살펴 맑혀가는 한 해 되기를

정초기도회향 및 신중기도입재

마침내 새 해의 첫 날이 시작된 2월 8일, 7일간 이어진 정초기도를 입재하였습니다.

병신년 정초기도에는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올 한 해도 정법으로 살아가는 불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가피와 복락이 충만하기를 발원하였습니다.

2월 14일에는 정초기도를 회향하고 영축산을 외호하는 신장님들께 기도 올리는 신중기도 입재 법회가 함께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법문은 동국대 불교대학 명예교수이신 통도사 선덕 법산 스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법산 스님은 "어두운 방은 번뇌요, 중생이요, 지옥이고 불을 밝히면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요, 극락세계가 된다"며 "계도를 이루고 복덕이 구족하고 타인을 구원하는 힘이 구족하면 세간에 광명을 퍼트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질 것"이라고 마음을 밝히는 깨달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고 하심하는 정진의 삶 가운데 불보살님과 호법신장님의 외호와 가피가 따를 일입니다. 병신년 한 해도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맑히는 참불자의 삶을 서원합니다.

졸업, 그 자비행자로의 첫 걸음

불교대학·선다회 졸업식 및 신행단체 시상식

2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경내 설법전에서 통도사 불교대학과 선다회의 졸업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불교대학 입문·본과·경전·선어록반과 선다회 기초·수련·연구과정, 사범과정을 수료한 448명이 수료증을 수여받았습니다.

부동품계증을 수여받은 권혁명 불자님을 비롯하여 신행과 봉사에 앞장선 불자님들에게는 방장스님 표창, 주지스님 표창, 포교원장상이 수여됐으며,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통도사 발전에 기여한 신행단체 불자님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주지 영배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중생제도인 만큼, 졸업을 기하여 자비행자가 되고 가족, 이웃, 사회에 전법하는 전법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은 실천할 때 비로소 생명처럼 살아 움직이는 법"이라며 "오늘 졸업은 정해진 배움의 기간을 졸업하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졸업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불교대학은 지난 1996년 7월 종단으로부터 불교(교양)대학으로 인가받았습니다. 그 해 입문반 1기 개강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많은 불자님들에게 불법에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으며 정법 홍포에 앞장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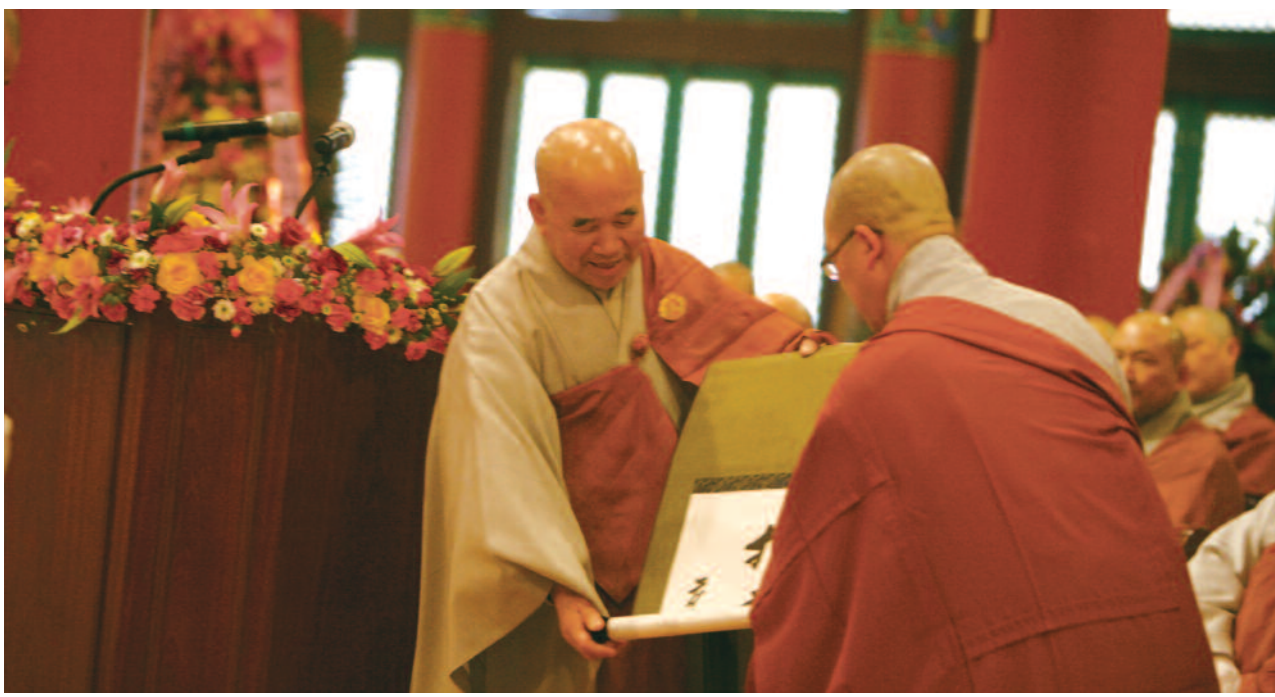
멈춤 없는 길,
대 자유인 될 때까지 이어지길…

율원·강원 졸업식 거행돼

영축율학승가대학원과 영축총림승가대학 졸업식이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영축율원은 10회 졸업식을, 승가대학은 59회 졸업식을 봉행하였는데 율원은 수산스님을 비롯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강원은 범여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졸업생이 각각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또 다른 공부인의 길로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방장 원명지종스님, 주지 영배스님, 율주 혜남스님을 모신 가운데 거행된 졸업식에는 종무소 전 소임스님들과 율원, 강원의 강사스님들이 모두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졸업생들에게는 총무원장상, 교육원장상을 비롯한 종단 교육의 수장 스님들이 수여하는 상이 수여되기도 했으며 사중에서는 방장스님, 주지스님, 율주스님, 강주스님, 율원장 스님상 등이 각각 수여되었습니다.

한편, 방장스님께서는 율원과 강원의 수상자에게 친필 족자를 하사하셨으며 "오랫동안 닦고 또 닦았겠으나 해결 못한 번뇌 갈등은 다시 쉼 없이 정진하여 해결하기를 바란다. 중생들을 위한 길은 멈춰선 안 되며 대자유인이 될 때까지 하루도 멈춤 없이 정진하라." 라는 법어를 주셨습니다.

또한 율원장 덕문스님은 훈사를 통해 " 경사스러운 결실에는 늘 어른스님들이 계셔 그 결실의 양분이 돼 주십니다. 방장스님을 위시한 주지스님과 교수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은 이 시대의 원력보살이 되어야 합니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으며 강주 현진스님 역시 훈사에서 " 뿌리를 곧게 내린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휘어질리 없으며 대들보가 반듯하면 그 집 역시 외풍에도 위태롭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행자로서의 걸음 역시 그와 같아야 합니다."며 소중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주지 영배스님은 축사를 통해 " 졸업을 하고 이 산문을 나갈지라도 통도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졸업을 하는 졸업생들은 이제 같은 교단에서 함께 수행하고 보은에 감사하며 같이 신심과 원력을 발휘하는 한 승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때라고 여기고 더 단단한 행보를 하시길 바랍니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영축율원은 6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강원은 47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시비분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천진의 눈으로 모든 것 보는 날이어야

불기 2559년 을미년 동안거 해제 법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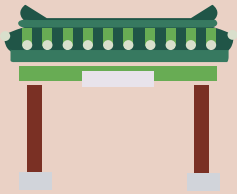
불기 2559년 동안거 해제 법요식이 지난 22일 설법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을미년 11월 26일 동안거 결제에 든 360명의 결제대중은 이날 100일간의 공부를 회향하는 법석에서 영축총림 방장 원명지종대종사의 해제법어를 수하는 것으로 겨울살림의 점검을 하였습니다.

해제 법상에 오른 방장스님은 법어에서 "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한다. 일념으로 화두가 견고해지도록 애 써야 할 것이며 그 화두가 갑옷임을 알고 뛰어내려야 한다.

정진 중생이란, 깊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다. 무명의 눈으로 허공을 느꼈다면, 오늘은 천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날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처를 가려내는 곳이므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의 분상을 확인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400여 대중과 불자들을 일깨워주셨습니다.

한편, 주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 수좌스님들에게 있어 안거는 향상의 시간이었으리라 봅니다. 한철의 공부가 여러분의 수행에 더 큰 바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호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시 챙기고 살펴 더 나은 하안거를 맞도록 하겠습니다."며 종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이번 동안거 대중은 보광선원 26명, 극락호국선원 30명, 무위선원 28명, 대적선원 14명, 도솔선원 10명 등 비구선원 105명과 동국제일선원 32명, 정수선원 35명 등 비구니선원 67명, 보살선원, 시민선원, 홍법무위선원 7명 등 재가자 선원 75명과 총림 대중 43명 등 총 360명이 해제를 맞았습니다.



3월의 이야기

입학

등을 떠민 건 아니었다.
내켜서 나선 길이었다.
커다란 개울의 돌다리를 건넜을 때,
스님은 그 돌다리를 반쯤 건너와
나의 손을 잡아 주었다.
그리고는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다.
꿈이었다.

꿈은 현실의 연장이라고 어느 선사,
법상에서 일러주셨다.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난 불교 속으로
입학을 했다.
마치 꿈에서처럼.

3월은 시작의 달이다.
3월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세상으로의
입학을 알리는 시절이다.
당신은 어느 때, 어느 시절의
입학을 기억하고 있는가.

수줍게, 혹은 당당히 입학을 했을 모두는
지금 수학修學에 한창이다.
살아 있는 모든 날들이란
수학의 시간이다.
졸업이라는 이수의 날을
꿈꾸는 수학의 시간.

입학은 설렘이며 출발이다.
3월, 청매 향 넘실대는 이 호시절,
진정, 당신의 입학은 언제였는가.

글.
남지심 소설가

첫 손자의 첫 입학을 자축하며

입학入學은 배움에 든다는 말이니, 배움을 처음 시작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배움은 그냥 안다는 뜻이기보다는 학문을 통한 배움을 시작한다는 말일 것이다.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학의 경험을 누구나 다 해 봤을 것으로 본다. 나도 물론 몇 차례에 걸쳐 입학의 경험을 해 봤다.

내가 처음 입학을 경험한 것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다. 그때가 6.25 가 발발한 해라 나는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마을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장백한 줄기줄기…」로 시작되는 김일성 찬양가를 배우다가 그만두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연 학교에 가서 나이에 따라 학년을 정할 때, 다행히 나이가 적어 <갈전국민학교 1학년>생으로 다시 입학을 했다. 내 인생의 시원始源, 일생 동안 책과 가까이 하며 살았으니 갈전국민학교 입학이 내 인생의 시원임에 틀림없다.

까만 통치마에 흰 저고리, 단발머리에 버짐이 핀 얼굴로 입학식에 참석했을 두메산골 어린 계집아이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끝이 찡해 온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땅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올라 작은 못을 만들고 있는데 그 퐁퐁 솟아오르는 물이 한강과 낙동강의 시원始源이라고 한다. 강원도 두메산골의 그 어린 계집아이가 내 인생의 시원이다.

2016년 3월 2일은 나의 첫 손자 여준이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날이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가슴 설레이고 있다. 분만실에서 첫 대면했을 때의 감동, 저희 할아버지 얼굴을 꼭 빼닮은 아이가 눈을 빼꼼이 뜨고 쳐다보던 그 작던 빨간 얼굴의 아이가 세상살이에 잘 적응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인생의 첫 과정을 잘 치러낸 여준이가 대견하고 고맙다.

1년 여 전, 여준이 아빠인 내 아들이 경기도 용문 아래에 있는 지평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내 머리에 처음 떠오른 생각은 아이들 교육이었다. 나도 평소에 아이들은 자연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막상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니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걱정이 고개를 쳐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1년 여를 지나고 보니 아이들을 시골에서 키우기로 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골로 내려 간 아이들은 여름 내내 냇가에서 목욕을 했고, 시간 나는 대로 저희 부모하고 뒷산을 오르내리며 놀았다. 그리고 개구리소리 새소리 풀벌레소리를 수시로 듣고 살았으니 그 소리들이 아이들 가슴속에 새겨놓은 무늬는 따뜻함과 평화로움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지자체도 학습에 필요한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미디어 발달로 시골에서도 온갖 첨단문화와 접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았던 시대의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여준이가 입학할 학교는 면 소재지에 있는 지평초등학교다. 이 초등학교가 여준이가 일생동안 이어갈 지식의 시원이다. 여준이가 일생동안 익혀갈 지식의 내용이 어떤 것일지는 알 수가 없다. 내가 일생동안 경험했던 지식도 이렇게 다양한데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될 지식의 내용은 어떻겠는가? 지금의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지식이 변화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내가 살았던 시대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그 아이 세대엔 가치 없는 것들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틀 안에서 최소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러리라고 믿으며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사랑하는 손자에게 할머니로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는 존경이라는 말을 너무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존경받지 못해도 통장은 존경받을 수 있다. 대기업 회장은 존경받지 못하지만 구둣방 수선공은 존경받을 수 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을 통해 주위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공헌하고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인격까지 갖추고 있다면 더욱 더 말이다.
하루하루 습득하는 지식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시원으로부터 멀리 흘러간 강물처럼 자신이 흘러온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주위로부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기를 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지심
불교관계 글을 35년 동안 꾸준히 써 온 소설가.
순수 소설로는 『솔바람 물결소리. 연꽃을 피운 돌. 우담바람 1, 2, 3, 4권』이 있으며
현재 불교신행 단체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통일 바라밀 숲〉 〈얘기꾼〉 대표를 맡고 있다.

글.
이학종 미디어붓다 대표기자

인생이 입학이다

입학入學은 설렘이다. 입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때가 생각난다. 때때옷 입고 가슴에 코 닦이 수건을 명찰처럼 매달고, 앙증맞은 가방을 둘러메고 엄마 손 잡고 넓은 -지금 학교에 가보면 작은 그때는 왜 그렇게 넓게 보였는지- 학교 마당에서 콩콩 뛰는 가슴으로 뛰놀았던 추억이다.

낯선 동무들과의 첫 만남은 신기하고 즐거웠으며, 조금은 두렵기도 했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가져다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입학이란 학문의 전당으로 들어선다는 뜻이다. 여기서 학學이란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배워야 할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입학은 새로운 세상, 온갖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첫 대면이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의 입학을 경험한다. 엄마라는 든든한 '백'에 의지해서 맞았던 초등학교 입학부터, 좀 더 크고 깊은 학문의 세계로 진입하는 중고등학교 입학, 그리고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입학까지 사람들은 한 생애에 걸쳐 여러 차례의 입학을 경험한다.

사람이 동물과 달리 입학을 통해 배움의 길을 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 마디로 동물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다. 동물과 사람의 '잘 사는 길'은 그 방향이 정반대이다.

동물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최고의 영예를 갖는다. '라이언 킹'에서 본 것처럼 동물세계에서는 강한 자만이 명예와 권력을 확보한다. 오직 강한자만이 먹이와 암컷들을 독차지한다. 동물세계에서는 뛰어난 살생 능력이 가장 큰 가치 기준이다.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최고의 평가를 받는다. 이런 세계에서는 약자들은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두머리가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것에 몰두할 때를 제외하면 약자는 숨 한번 편하게 쉬지 못하는 비루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인간세상에서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최근 유행한 드라마 '리멤버'에서 한 기업 회장의 포악한 성정을 가진 아들이 돈의 힘으로 살인과 마약, 폭력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들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드라마는 라이언 킹의 룰이 인간세계에서도 그대로 통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동물세계의 약육강식弱肉強食에서 벗어나는 삶을 권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다. 돈과 힘으로 온갖 악행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람은 동물세계와 달리 인간세계에서는 경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입학이란 바로 한 사람이 동물세계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버리고 인간세계에서 인정받는 가치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받는 길로 접어드는 숭고한 출발이다. 입학에서의 학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는 지혜,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를 배우는 길로의 들어섬이 입학이다.

그러므로 입학을 꼭 학교에 들어가는 협의의 개념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들이 모두 입학이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어머니의 태에 드는 것도 입학이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입학이며,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입학이고, 졸업 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입학이다. 취직도, 결혼도,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것도 모두 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입학이다. 어느 것 하나 입학 아닌 것이 없다.

며칠 전, 어머님께서 사바세계의 인연을 접으셨다. 95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셨으나 부모를 여읜 자식은 언제나 죄인이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는 심정이겠지만 어머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온다. 차갑게 식은 어머님의 이마와 얼굴을 매만지며 고단했던 사바세계에서의 인연사는 다 잊으시고 부디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라고 말씀드렸다. 사나흘 정신없이 어머님과의 이별의식을 진행했다.

어머님을 보내 드리는 마지막 날, 화장장에서 나는 극락이라는 이름의 학교에 입학하는 어머님을 안내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슬픔을 달랬다. 50년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모습처럼, 이번엔 내가 '극락세계'라는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입학의 연속이다. 극락세계에서도 정진을 거듭해야 마침내 상품상생의 단계에 이르러 열반락을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의 인생도 입학과 정진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언제나 설렌다.

설렘은 그 안에 희망과 동시에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 그 불안함을 편안함으로 바꾸는 과정이 수행이요, 정진이다.

벌써 3월이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맘때면 입학식으로 시끌벅적하다. 인생이 늘 입학의 연속이라, 입학시즌이 따로 있겠냐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입학하는 3월에 입학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입학 시즌 3월을 맞아 입학의 참 가치를 살펴보고 음미해보면 어떨까.

이학종
시인
미디어붓다 대표기자
미붓아카데미 대표

글.
천미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학교도 교실도 없는 나의 입학 이야기

"내 영어책 어디 있는지 본 사람?"

며칠 집을 비우느라 짐을 챙기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요즘 공부하는 영어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분명 어제 밤에 공부 하고 머리맡에 두었던 거 같은데 없었다. 혹시나 싶어 가방 안도 다시 한 번 뒤져 보고, 거실 테이블 위에 아들이 읽고 쌓아 놓은 책들 사이에 끼였나 살펴봐도 흔적이 없었다. 며칠 동안 집을 비우므로 꼭 가지고 가야겠기에 결국 집을 떠나기 전 급해진 나는 남편과 아이를 향해 소리 높여 물을 수밖에 없었다.

"어제 술이가 가방 챙기면서 자기 가방 안에 넣던데. 엄마가 매일 공부하니까 챙겨놔야 한다면서." "와우~ 우리 아들밖에 없네. 고맙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한참을 찾았네." 책을 찾은 기쁨보다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들 눈에 내가 매일 영어 공부하는 엄마로 비춰졌다는 게 정말 뿌듯했다.

나는 요즘 영어 공부 중이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학원을 다니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나름의 계획과 방법으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영어를 당장 써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거나 영어 공부를 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로만 소통 가능한 친구 몇이 있고 가끔은 외국 여행을 가므로 사람과의 소통과 이해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싶다는 소박

한 바람에서 출발했을 뿐이다. 한 때는 인터넷 강좌를 듣기도 했는데 요즘은 영어로 된 이야기책 외우기를 진행 중이다. 학창시절에도 하지 않던 영어책 통째로 외우기를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기억력을 한탄하는 시절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외우는 책은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다. 아주 작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을 뻔 했으나 주인공의 도움으로 살아난 돼지와 거미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다. 영어 수준으로 보면 초등 고학년 수준이라고 책 표지에 적혀 있긴 하지만 내가 외우기엔 결코 만만치 않다. 오디오 음성 파일은 그 책을 쓴 작가가 직접 읽어준 것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 매번 깜짝 놀라고 만다. 그야 말로 '원어민들은 이렇구나'를 실감나게 하는 빠르기다. 그래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는 앱까지 다운 받아 활용하고 있다.

예닐곱 살 아래 도반과 열 몇 댓살은 어린 도반과 공부 모임도 만들었다. 범위를 정하고 일정 기간 각자 공부를 하다가 약속한 날에 만나 암기해 온 것을 점검하고 암기 문장을 활용한 응용 문장 말하기, 이어서 콩글리쉬 수준을 못 벗어나는 대화 나누기까지 이어간다. 공부시간은 한숨과 웃음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표현하고 싶은데 단어를 몰라서 혹은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한숨이 절로 나고 나름 표현한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이해되어 서로 한바탕 웃게 되기도 한다. 약속한 날짜가 오기까지 나는 매일 영어 오디오 파일을 반복 또 반복해서 듣고 따라한다. 그리고 잘 안 들리는 부분은 책을 확인하며 공부한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만의 공부를 이어가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 한 때 내가 한창 푹 빠져 들었던 영어 강좌에 이제는 남편이 빠져들고 있는 것도 내 영어 공부의 덤이다.

"이 강좌 정말 재미있어. 한번 들어 봐." 그렇게 권할 때는 반응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이 사람 정말 강의 잘 하네. 문리가 터진 것 같아."라고 감탄 중이다. 언젠가 아들도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영어 이야기를 외우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영어 공부에 '입학入學'했다. 그동안 내가 경험해 왔던 입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입학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늘 당연한 듯 여겼던 학교 건물이나 교실이 따로 없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최고의 교재를 스스로 선택하고 공부에 열의를 품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중이다. 입학入學의 글자 뜻 그대로 '배움에 들어간' 것이다.

그 입학 이후 뒤늦게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공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는 몰랐던 배움의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있다. 교재 선택부터 진도 범위, 평가까지 스스로 진행한다. '학창 시절 이런 즐거움을 알았다면 어땠을까'를 절로 자문하게 된다. 학창 시절

에도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공부를 싫어하진 않았지만 다분히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생각에 안타깝다. 학교에 입학해서 수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지만 진정한 '입학'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입학을 하고 보니 배움은 그 영역을 가두지 않으면 확장되어 나갔다. 이것을 배워가니 저것이 보이고 또 저것을 공부하니 깊이가 더해졌다.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세상엔 좋은 스승이 얼마든지 있고 그들이 전하는 게 단지 지식이나 영어 문법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한 때 빠져 들었던 영어 문법 강좌의 강사는 그야말로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부처님의 대자비와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영어 강좌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강의를 들으며 나는 그 강사의 자비심에 눈물을 흘렸다. 학창 시절 그 어떤 선생님에게서도 받지 못한 감동이었다. 나의 학창 시절 선생님들이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입학을 하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였다.

영어 공부에 입학 얘기를 털어 놓다 보니 내가 가장 오랫동안 입학 상태를 유지 중인 게 또 하나 있음을 알겠다. 나는 '불교'라는 과목을 배우고 익히는 학생이다. "엄마는 어떤 사람인 거 같아?"라는 질문에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라고 답해 준 아들의 생각처럼 나는 불교 안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불교에 입문하고 난 뒤 진정한 입학은 스스로의 몸을 교실로 삼고 스스로의 마음을 교재로 쓰며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학급 친구를 대신할 공부 도반들이 인연되고, 또 어떤 교재보다 좋은 책들이나 사람들이 스승이 되어 나투어 주었다. 앞으로 또 어떤 배움에 들어갈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수많은 입학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강의했던 어느 스님께서 해동소의 마지막 한 문장을 강설하지 않으시며 '다 배웠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하셨던 깊은 뜻을 되새기며 나는 매일 매일 새롭게 영어 공부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학하고 있다.

천미희
부산대 심리학과 졸업
전. 현대불교신문 기자
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사찰 속 공양간을 가다

글. 사진
김윤희 등불 편집실

승풍 선풍 가풍 간직한

비구니 제일도량
가지산 석 남 사

그곳에 가면 누구라도 손님이 된다

사찰의 공양간을 찾아가는 대목 치고는 다소 뜬금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객을 맞는 주인의 모습이란 승속을 불문하고 세간, 출세간을 막론하고 그렇듯 정중하기만 한가 보다.

정갈함이 묻어나는 비구니 도량의 경우, 그 수위는 실로 찬사를 보내야만 할 정도이다.

가지산의 품에 안긴 석남사(주지. 도수)의 도량은 늘 찾아가는 이가 '손님'으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석남사를 찾았다. 일주문에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도량임에도 석남사는 철저한 산사이고 오롯한 자태 그대로이다.

청운교와 섭진교를 건너는 마음이란 삿된 것을 여의고 맑고 푸른 기운을 취함으로 그 도량에서의 할 바를 일러주는 듯하다.

60여 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석남사는 국내 비구, 비구니 도량 가운데 유일하게 조공시 오조가사를 수하고 발우공양을 하는 도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는 예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석남사만의 가풍이며 후일까지 이어질 변하지 않을 승풍으로 자리할 것이다.

먼 데서 손님이 찾아오면, 엄마는 늘 청소부터 했다. 나무의 결이 선명했던 짙은 밤색의 마루청은 윤이 반질반질하게 빛났고, 마당과 골목 어귀에는 비질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쑥하고도 정갈하여 손님 맞을 채비를 완벽하게 해 두었다. 그리곤, 준비된 것들로 음식을 만드는데 그 정성의 손길은 지금 생각해도 가히 최상급이었으며 지천명의 나이에도 '손님'을 맞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해준 엄마가 가르쳐 준 커다란 선물이다.

석남사는 대웅전과 강선당講禪堂, 서래각西來覺, 3층 석탑과 보탑성전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전각이 도량을 이루고 있다. 그중 공양간은 스님들의 대중방인 청화당과 향로전 아래에 있는데 구조는 지하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깥에서 석남사 도량을 찾아오는 이에게는 도량 가까이 다가서면 공양간 굴뚝의 연기를 먼저 확인하며 도량으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 그러니 보탑성전 아래로 난 층계를 올라 도량으로 발을 내딛었기에 공양간은 계단을 내려가야 만나지는 구조이다.

취재를 위해 객이 찾은 날에도 바깥 공양간에서는 원주 무용스님이 직접 군불을 지펴 다시물을 끓이고 있었다. 장작더미를 들어다 아궁이에 집어넣는 스님의 손길은 꽤나 익숙해 보였다. 장작을 넣는 일도 방법이 있다더니 역시 스님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 느껴진다.

석남사의 무쇄솥은 세개이다. 세 개의 검은 무쇠솥이 각각의 용도에 따라 쓰이게 되는데 취나물밥, 콩나물밥, 버섯밥을 할 때면 무쇠솥은 늘 큰 역할을 한다고. 그날은 특식으로 나오게 될 김밥공양에 국물로 올려 질 다시물을 우려내고 있다는 원주스님의 설명이었다. 소임을 다하는 이에게는 다소 번거롭기도 하겠거늘, 촬영을 위해 배려도 마다 하지 않는다.

이내 내부 공양간으로 향했다. 이미 정갈하게 차려진 찬이 스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추김치, 취나물, 미나리전, 물김치, 흰 쌀밥, 장국물 등 특별식이 마련된 김밥과 어울리는 음식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웬 김밥공양이지요?"

"오늘, 선방대중공양을 주로 다니는 <선덕김밥공양회>에서 김밥대중공양을 온 날입니다. 스님들에게는 울력하는 날이기도 하구요."

김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특별하다. 그래서인지 사원에서 먹는 김밥은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야말로 소풍 나온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니 말이다. 흐르는 냇물, 산에 깃든 육신, 삼삼오오 앉아 유년의 소풍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 그대로인 탓이다.

그런데, 세수가 지긋한 노스님들의 경우엔 김밥 보다는 맨 밥 공양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인지 상공양에는 이미 맨밥이 준비되어 있었고, 구순을 넘긴 노스님과 팔순을 넘긴 불필스님, 주지 도수스님은

김밥공양을 준비해 준 봉사회원들을 향해 극진한 인사를 빠트리지 않으면서도 소화력이 더딘 김밥 대신 유부초밥과 누드김밥을 두 어 개쯤 맛보는 것으로 인사의 예를 다하는 눈치였다.

그런 석남사 공양간의 조공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10여명의 스님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차려내는 아침 공양의 찬에도 석남사만의 전통이 숨 쉬고 있는 듯하다. 연근조림, 배추김치, 브로컬리 등 스님들의 영양을 따져 세심하게 준비되는 조공이다. 또한 석남사에서는 어른을 깍듯하게 모시고 그 어른들은 어느 때 한번이라도 새벽예불을 거르지 않는다. 그러니 철저하게 전통이 이어지는 것일 게다. 본분에 충실하고 도리를 다 하는 일로 어른의, 후학의 의무를 분명하게 해내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공양물을 올린 이의 이름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양간 입구와 선방의 대중방에도 정확히 표기를 해 알리고 있었는데 이는 공양을 올린 공덕에 대한 정중한 예의였고, 바르게 알고 받으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공양을 마치고 입승 스님을 따라 포행을 나섰다. 8명의 구참 수좌 스님들이 앉는 정수선원과 18명의 수좌 스님들이 앉는 금당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정수원은 대웅전과 가까운 중심도량에 위치해 있었으며 금당은 본 도량에서 다리를 건너야 했다. 숱하게 석남사를 오고 갔어도, 겉만 훑고 간 격이었다. 각 선방의 대중방에는 달마스님의 진영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구니 처소 나름의 더 정중함이 뚝뚝 묻어났다.

공양이 끝난 시간, 대중 수행 처소인 금당의 다각실로 모여든 스님들마다 다식으로 가져 간 케익에 대한 답례의 인사가 넘쳐난다. 몇 개의 케익 공양을 올리고 난 후, 분에 넘치게 받는 인사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은 것에 감사의 인사를 해 온다면, 부처의 가르침에는 얼마나 큰 인사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가히, 배운 바 그대로 마음밭을 일군다는 느낌이다. 나 또한 감사의 인사를 수도 없이 해야 할 대목이다.

공부를 지어가는 선방의 풍토가 퇴색되지 않고 이에 머물기를 바란다면 몸소 앉지 않는 탓이라 말 하련가? 그토록 장부의 기질을 넘나들 만큼 철저했고, 호탕했으며 분명했던 비구니 인홍스님은 살아 생전, 이 가풍을 뿌리내리게 했으며 죽어 '흠모'로 후학들의 표상이 되고도 남음이었다. 조사각에 모셔진 10분의 조사스님들 사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굽어보는 상호가 남다를 수밖에 없음이다.

금당을 빠져나와 다시 섭진교를 향하니, 텃밭에는 벌써 봄이 당도해 있다. 청매가 반짝였고 연록의 새순이 막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는 섭진교 아래로, 청운교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곳의 승풍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이 이치 알고 살아가는 부처의 후예들이 예사롭지 않구나.'

일러스트.
정기란 불교일러스트 작가

글.
안필섭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인도 불교의 역사 _

업과 윤회 개념의 성립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인도사상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업, 윤회,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사상이야말로 인도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도사상에 대한 이해는 업, 윤회, 해탈의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유파든 무파든, 바라문 전통이든 사문 전통이든 불교를 포함한 인도에 근간을 둔 사상이라면 모두 업, 윤회, 해탈 개념을 해당 학파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보면 동일한 업, 윤회, 해탈 개념을 각각 어떻게 달리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파가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탈 개념은 업과 윤회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먼저 업과 윤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업業은 범어로 카르마(karma)라고 하며, 속세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과 관련됩니다. 이 업의 개념이 처음부터 인도사상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베다의 시기에 제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신神 개념이 생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태양, 달, 천둥, 비 등과 같은 자연 현상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보다 다양한 성격을 각각 지니게 됩니다.

| 싯다르타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야쇼다라(인도 국립박물관 소장)
사진출처 : By Nomu420 (자작) [CC BY-SA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via Wikimedia Commons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부처님(기원전 2세기)

다양한 자연 현상 가운데에서도 태양으로부터 비롯된 신을 바루나(Varuṇa)라고 하는데, 태양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일 떠올라 모든 곳을 비추므로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 바루나는 이후 사법司法의 신이 됩니다. 바루나가 사법의 신이 되면서 함께 성립되는 것이 규칙, 이치, 법칙을 의미하는 리타(ṛta)라는 개념입니다. 이 리타(ṛta)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카르마(karma), 즉 업 개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karma)라는 말은 본래 우리말의 '하다'(√ kṛ)라는 말이 명사인 '함'으로 변한 것처럼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업業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말 '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業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때문에 업業은 법률처럼 특정하게 정해진 어떠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삶' 그 자체라고 이해하는 편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업業의 개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바로 '모든 업業은 그 결과가 뒤따른다.'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를 동반하게 됩니다. 간혹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일 뿐, 결국 그 결과가 언젠가는 나타나

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생을 살아갈 때, 결과로 나타나는 업業보다는 느려서 나타나지 않는 업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생에서 미처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남는 잔여 업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결과를 나타내야 하므로, 이생이 마감되는 순간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다음 생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잔여 업이 새로운 삶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도사상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윤회라는 개념은 삶의 기회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결과로 나타나야만 하는 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삶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업이 남아 있는 한 계속되며, 따라서 이러한 반복으로 인해 윤회가 지속되고 있는 삶은 '고통'입니다.

따라서 윤회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인도인만의 독특한 이해 방식으로,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거나, 죽으면 어디로 간다거나 하는 이해와는 달리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는 현생에 쌓은 업을 소멸시키고자 윤회하지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업은 소멸되지 않고 쌓이게 되므로 윤회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회로 반복되는 삶은 고통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윤회의 고통스러운 반복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이 그 중심이 되는 윤회의 고리를 단절시켜야만 하며, 윤회의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업을 발생시키지 않고 기존의 업을 모두 소멸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잔여 업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반복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해탈하기 위해서는 업의 발생과 유지를 차단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안필섭安必攝
대구 출생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학부, 석·박사 졸업(철학박사)
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현. 한국요가학회 학술이사

통도사 합창단 단원모집

영축총림 통도사 합창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전달하는 신행모임입니다.
장엄한 법석에서, 아름다운 야단법석에서
혹은 지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정중한 의식에서 소리공양을 올릴
귀한 인연을 지어 보시기를 바라옵니다.
통도사 합창단에서는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 상** 불교와 음악에 관심 있는 통도사 신도 및 일반불자(약간명)
- **모집기간** 상시모집
- **활 동** 사중 정기 법회 및 행사시 음성공양, 대외 합창경연대회 참가
  음성공양을 통한 불법홍포 및 통도사 홍보
- **문 의** 지휘자 : 010-4558-8728, 포교국 : 055-384-8380

통도사 선다회 제25기 신입생 모집

- **대 상** 차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불자
- **모집인원** 기초반 1년 과정 ○○명
- **모집기간** 2016년 3월 31일까지

- **수 업 일** 매월 1, 2, 3, 4주 화요일
- **수업시간** 오전 10:30~12:30

-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통도사 종무소
- **모집기간** 입회지원서, 사진 2매(3×4cm)
- **문의전화** 통도사 종무소 055-384-8380
  선다회 총무 010-3885-1422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 불사 권선문

영축총림 통도사는 1300년 전통의 수행가풍을 이어온 수행도량입니다. 영축산의 위용과 함께 수행풍토를 이어가고 있는 통도사에서는 승가의 수행 외호와 함께 재가불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 불사에 뜻을 모으고 2014년 6월 21일 기공식을 봉행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비와 수행, 자선의 마음을 함축한 요양병원을 계획,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통도사가 전 대중의 뜻을 모아 착수하게 된 불교 요양병원 건립에 여러 불자님들의 수희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신앙심 고취와 더불어 향기어린 봉양의 의미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엄전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농협 351-0655-3958-23 (예금주 : 통도사)

병원불사 내역

일병동 동참	일억원
특실 동참	삼천만원
진료실 동참	천만원
일병상 동참	백만원
의료기기 동참	오십만원
휠체어 기증	삼십만원

※ 불사금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 동참금은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통도사 요양병원 법당
약사여래 삼천불 봉안 불사

사부대중의 원력모아 요양병원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약사여래 삼천불전을 건립하여 약사여래
삼천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가정 가정 무루 동참하시어 가족분들의 무병장수와
병고쾌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동참내역 원불 조성 소불 - 일백만원, 대불 - 일천만원
불사문의 기도접수처(화엄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1662-8624-1(예금주 : 통도사)

글. 사진
김윤희 등불 편집실

세계의 지붕 티베트,

그 여행자의 마음에 깃든 지상 최고의 기억

중국 상해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얼마 있지 않으면, 티베트 라싸 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착륙을 20여 분 앞둔 기내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빵 봉지가 마치 산란을 앞둔 물고기의 배처럼 둥글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몫으로 주어진 몇 개의 비스킷 봉지 역시 부풀대로 부풀어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의 높이를 가늠하게 해주는 풍경이었다.

그렇듯, 티벳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다. 티벳은 히말라야 산맥과 곤륜산맥 사이에 있는 해발 4천 미터가 넘는 지구상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일명 '세계의 지붕' 혹은 '제 3의 극지'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티벳은 정확히 말하자면 티베트족이 살아가는 서장 자치구이다. 연면적 122만 평방킬로미터에 약 18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곳으로 기후는 한냉 건조하고 일교차는 아주 크며 바람이 늘 세차게 분다. 그런 수도 라싸의 여름 최고기온은 섭씨 22.5도이며 겨울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10.2도이고 연평균기온은 최고 섭씨 15.3도, 최저 섭씨 0.8도이다. 그러므로 수목은 성장한계선을 넘어 황량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어쩌다 만나지는 나무들마저도 생기를 잃은 메마른 모습이다.

라싸 공항에 도착했다. 작고 소박한 공항청사를 빠져나가니 한국의 가을 들녘에서 빈번하게 만나지는 코스모스가 마치 시공을 초월해 그리로 옮겨 놓은 듯 똑같은 자태로 멀리서 날아간 이방인들을 마중했다. 그리곤 라싸의 겨울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천진한 얼굴의 조선족 가이드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일행을 반겼다.

행운과 무병장수를 의미하며 환대의 뜻까지 가득 담겨져 있다는 흰색의 긴 천을 모두의 목에 걸어준다. 무탈과 반가움으로 일주일간의 여정이 거뜬해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주문을 외듯 마음을 깊이 내며 티베트의 수도 라싸로 향했다.

크로키의 장면처럼 차창으로 지나치는 티베트의 산야는 메마르고 황량해 보였으나 그 척박한 풍경을 감상하는 이방인의 기저에서는 낯고 자그마한 흥분이 일었다. 영상으로 감상하던 오체투지, 차마고도, 암드록쵸호수, 장체, 시가체. 그리고 조캉사원, 드레풍사원, 세라사원, 포탈라궁… 말로만 듣던 꿈의 나라에 내가 발을 디딘 것이었음을 몸이 알고 반응을 한 셈이었다.

티베트는 강수량이 매우 적다. 그러므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이 대부분이며 산소가 희박하여 생존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런 연유로 티베트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고산병을 비켜가기가 힘들다. 예방의 차원에서 사전 여행정보를 숙지하고 준비를 하고 간 이에게도 고산병은 실로 최대의 적이고 복병이다.

그러나 4천 미터가 넘는 고원지대는 티베트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단함이 아니었다. 거리를 걷고, 기도를 하고, 일상을 탐닉하는 그들이 분명하건만 티베트인들에게는 고단한 내색이 전혀 없다. 수레를 끌며 염주를 파는 까만 낯빛의 여인에게도, 자전거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대는 젊은 청년에게도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하다. 어디 그뿐인가. 이른 아침 라싸 거리를 걷는 이들의 손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들려진 것이 있다. 염주와 마니차이다. 그들은 가깝든 멀든 '본래무일' 이고 '자성청정' 이다.
무슨 연유로 염주를 돌리고 마니차를 돌리는 것일까.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본래' 의 모습일지 모른다.
누구나 구경究竟에는 그런 모습으로 회향을 할 것이다.

아침 일찍 올라간 드레풍사원과 그곳에서 만난 존귀하신 부처님은 골목 어귀에서도, 사원의 계단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었다. 환하게 웃는 부처, 진지한 부처, 가족을 이끄는 부처, 그렇게.

티베트인들의 대부분은 한족이다. 이는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이후 지배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주를 하게끔 했던 탓이다. 그러니 조선족이 그곳으로 이주해 와 발을 붙이고 살기란 여간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였을까. 조선족 가이드의 모습이 고마울 따름이다.

티베트, 그것도 라싸를 얘기하며 오체투지를 빼놓을 수 없다. 조캉사원 앞과 바코르 광장 주변으로는 오체투지를 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마치 일상처럼 목도된다. 결코 간단한 일상이 아닐진데, 기도가 여일하게 이어지는 티베트이기에 갖는 낯익은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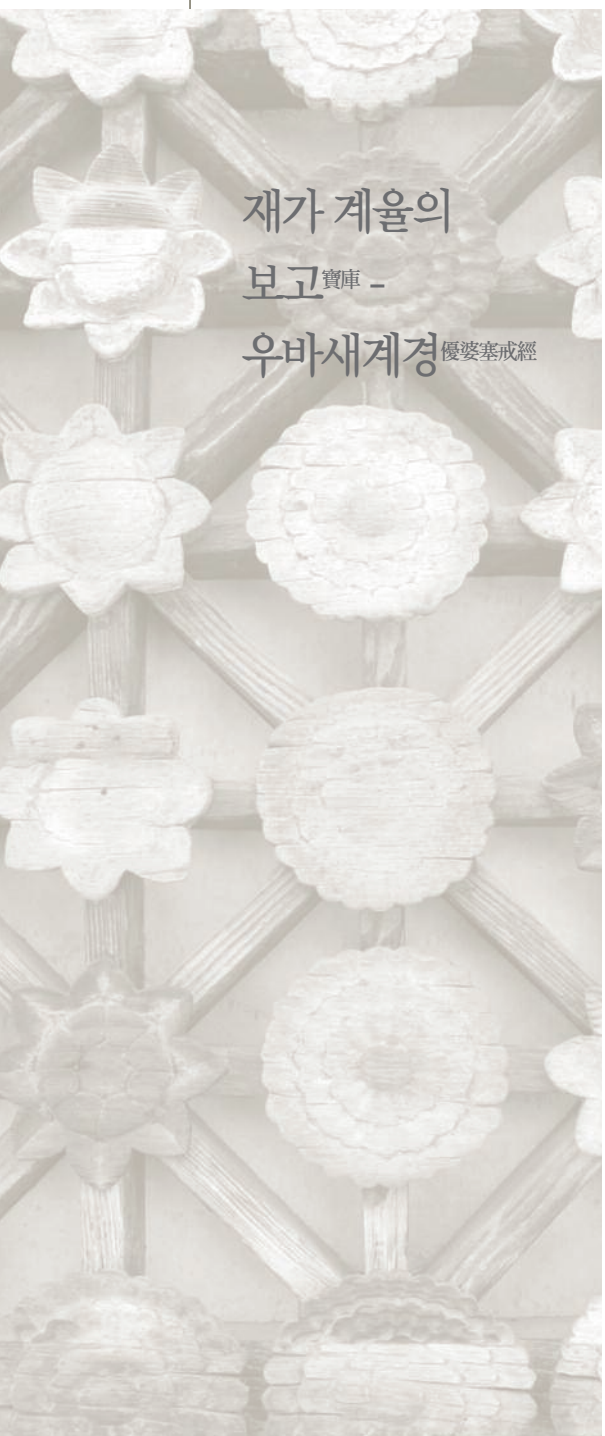
손에 손에 염주를 든 모습처럼 그렇게….

포탈라궁을 비롯해 라싸의 자랑거리를 웬만큼 경험하고 나니 다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암드록쵸호수를 감상하는 일이었다. 해발 4천 7백 미터에 위치한 암드록쵸호수는 기내에서 목도한 빵봉지의 모습처럼 이방인의 가슴이 제대로 부풀어 있었다. 꿈같은 기대이다.

굽이굽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우리네 미시령 고개와도 같은 더 많은 가슴저림이 이방인의 꿈을 깨웠고 창밖으로 펼쳐진 설산의 운치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며 그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전갈 모양의 터키석이라는 뜻을 지닌 암드록쵸, 그것은 티베트인들에게 생명의 물길이었다.

이쯤 되면, 중국의 티베트 점령에 관한 아픈 이야기는 건너 뛸 수가 없다. 1959년의 시민봉기와 1966년 문화대혁명은 티베트 불교 박해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 채 역사 속에서 멈춰버렸다. 그러니 포탈라궁을 참배하고 세라사원을 방문하는 일만으로도 이방인에게는 티베트 역사와 마주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7산 8해로 둘러싸여 4대주가 바깥을 외호하고 있는 수미산이 지닌 이야기는 우주법계의 법음이 이곳을 관통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일이다. 또한 장체에서 시가체로 향하는 끝이 보이지 않던 도로에서의 소회란 마치 우주로의 횡단을 하고 있다는 감상이었다.
난 그곳에서 그들이 지닌 원시적 삶의 기원을 확인했고, 물의 시원을 목도했고, 지구상의 가장 순박한 웃음을 받으며 이륙을 준비하는 라싸공항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바람에게도 마음을 전하는 그들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들의 영혼과 맞닿을 별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글.
덕문 영축총림 율학승가대학원장



재가 계율의 보고寶庫 -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제3 비품悲品 - 바라밀 완성을 쉽게 하는 마음

비품悲品은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그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는 일이 보살도를 완성하는 바라밀 실천의 지름길이 됨을 다양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육사외도들은 인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래께서는 두 가지의 인因을 말씀하시니 하나는 생인生因이고 하나는 요인了因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생인입니까? 요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열두 가지의 인을 차례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인이라 하는 것은 생인生因이고 두 가지 인이라 하는 것은 요인了因이며 세 가지 인이라 하는 것은 번뇌, 업, 기器이고 네 가지 인이라 하는 것은 사대四大이다."

(중략)

열두 가지의 인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모든 인을 잘 아는 것이 수행에 대단히 소중함을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남자여!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유루법의 셀 수 없고 끝도 없는 인과 모든 무루법의 셀 수 없고 끝도 없는 인을 다 알고자 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발한다. 그러므로 여래를 일체지一切智라고 한다.

선남자여! 중생이 보리심을 내는 것에는 생인이 있거나 요인이 있거나 혹은 생인과 요인이 있다. 그대는 생인

이 곧 대비임을 알아야 한다. 가여워함(悲)이 인이 되어 보리심을 내기 때문에 비심悲心은 생인이 된다."

해설

가여워하는 마음(悲心)이 인이 되어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완성한 마음이 대비심大悲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대승보살도를 발원하고 대승보살의 보살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비심입니다. 크게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보살심이며 대비심입니다. 이 대비심이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깨우치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비심을 닦는 일이 보살도를 가장 쉽고 빠르고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선생은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비심을 닦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고 부처님께서는 자상하게 비심을 닦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남자여! 지혜로운 이는 중생들이 생사고해의 큰 바다에 빠진 것을 보고 건져내고자 하는 비심을 낸다. 또 중생들에게 아직 십력十力과 사무소외四無所畏와 대비의 삼념이 없음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삼념을 갖추게 될까를 생각하므로 비심을 낸다. 또 중생에게 미워하는 마음과 삼독심이 많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 비심을 낸다. 또 중생이 오욕의 진흙탕에 누워 나오지 못하면서도 방일한 것을 보기 때문에 비심을 낸다."

(중략)

해설

이와 같은 총 32가지의 이유 때문이 보살이 중생을 연민하게 여기는 비심을 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를 얻지 못하였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중생을 살피는 것을 비悲라고 하고, 도를 얻은 안목으로 살피고 구제하려고 하는 것을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이가 비심을 닦아서 비록 생의 고뇌를 다 끊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큰 이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육바라밀이 바로 비심으로 짓는 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인을 잘 짓는 일이야말로 좋은 결과를 시행착오 없이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 품을 마무리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주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남자여! 보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출가한 이고 둘째는 재가보살이다. 출가하여 비심悲心을 닦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재가자로서 비심을 닦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재가자는 악한 인연이 많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재가자로서 비심을 닦지 않으면 우바새계를 얻을 수 없으나 비심을 닦으면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선남자여! 출가자는 오직 오바라밀만을 갖출 수 있으나 보시바라밀은 구족할 수 없다. 그러나 재가자는 갖출 수 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나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재가자는 먼저 비심을 닦아야 한다. 비심을 닦은 사람은 계율과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갖출 수 있고, 비심을 닦으면 베풀기 어려운 것도 베풀 수 있고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하기 어려운 것도 하게 되므로 온갖 선한 법은 비심이 근본이 된다."

해설

여기서는 재가자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출가자에 비해서 바라밀실천을 통한 보살도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심을 갖게 되면 어려운 조건을 크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가불자가 원만하게 수행을 성취하려면 일체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실천에 힘써야 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심히 실천했으면 합니다.

덕문스님
중봉성파스님을 은사로 통도사 득도. 월운 강백스님에게 전강
철우 · 혜남율사스님에게 전계
사미계 수계산림 유나
현 단일계단 교수사 · 갈마사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계단위원회 위원

글. 사진
이병인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사찰에너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찰 내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세상이 무상無常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수 천 년간 이어온 마차시대에서 자동차시대로 넘어간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지금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종언, 또는 탄소시대의 종언이라는 에너지의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초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것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에서 탈 탄소시대를 열어가자는 국제간의 합의이고, 그에 따라 지구촌의 공생을 위한 큰 전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 내에서도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기후변화 및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생활속에서의 에너지대책을 세워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찰도 규모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매월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찰 내에서 에너지비용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해 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09년을 전후해서 사찰 내에서 에너지 사용현황과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관한 조계종 총무원의 연구조사와 토론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책임자로서 전국의 20여 곳의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의 에너지사용현황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찰에 대한 조사결과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찰에너지 진단 결과 대부분의 사찰에서 사찰내의 전기와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찰에너지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들도 없고, 사찰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찰 내에서 사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효율측정 및 관찰을 통한 낭비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찰 내 에너지 관리체제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사찰 내에 핵심 에너지 관리자를 정하고, 역할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찰 내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슨 목적으로 소비되는 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확인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볼 때, 사찰 내 건조물에 대한 단열문제와 함께, 사찰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전기 부문과 열 부문에서의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사찰에너지의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열로 인한 에너지손실을 예방하고, 전기와 열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대책과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열원은 주로 전기와 등유이며, 사용기기는 조명, 컴퓨터, 팩케이지 에어콘, 심야전기보일러 및 난방보일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기부문의 경우 PC와 프린터의 절전강화, 냉온수기 및 자동판매기 Timer 설치, 고효율 조명기기(LED 등)로의 교체, 창고와 화장실의 에너지절약, 팩케이지 에어콘의 에너지절약 등이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열부문의 경우에는 사찰 내 보일러의 용량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사찰 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에 대한 체계적인 보일러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의 큰 흐름에 맞추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절감 및 효율화방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종단 및 개별사찰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고효율 에너지절약기기(고효율인버터, 고효율전동기, 고효율펌프, 고효율 LED조명기기 등) 장려금 지원사업, 에너지절약기기 융자, 신 •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풍력 등)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사찰 내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관한 기본조사 결과 현재 사찰 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찰은 포항의 천곡사와 통도사 성보박물관 등 몇 개의 사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흐름, 기후변화 등에 대한 지구적 대처 등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실적으로 사찰 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심각하게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찰 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적용가능한 것은 사찰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과 지열, 그리고, 사찰림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지역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한 일이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찰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찰경관의 보존과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찰에너지의 절약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단순한 재정적인 비용절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적 공동체로서의 책임감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대책으로써 탄소원 절감대책은 모든 산업 분야와 일상생활에 까지 확산될 것이고, 미래의 행동규범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대를 선도해 가는 종교계로서는 더욱 사명감을 갖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병인 교수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공학박사,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영축환경위원회 위원 등 40여 환경문화관련 자문

축서암
대웅전 상량식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 산내암자 축서암(감원 초우스님)이 도량 재정비에 한창입니다.

2월 24일 축서암에서 대웅전 큰법당 상량식이 봉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낙후된 구 법당을 허문 뒤 4개월 만입니다. 상량식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과 국장스님들을 비롯한 대중스님들, 축서암 불사도감 세봉 스님, 불자 등 100여명이 동참하였습니다.

상량에 앞서 삼귀의, 반야심경 등 간단한 법요식을 올리고 세봉 스님께서 상량문을 봉독했습니다. 영배 스님께서는 "외진 곳에 위치하여 여러모로 포교와 전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큰 원력을 세워 도량 불사를 시작하는 뜻에 감사한다"며 "불사가 끝날 때까지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축서암 불사 도감 세봉 스님은 "대웅전은 초파일을 기해 낙성될 것"이라며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을 정비하여 목조 법당과 요사채를 조성해 도량의 여법함을 되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월산 백양사 산신제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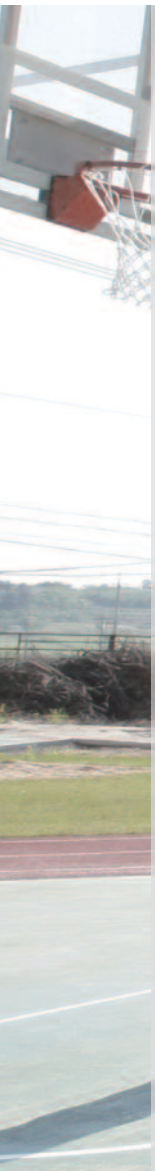
장　소　백양사 산신각
일　시　2016년 3월 13일 오전 10시
동참금　3만원
문의처　종무소 052-243-8712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산을 다스리는 영험한 존재가 있다고 믿어 산과 영험한 존재를 숭배해 왔습니다.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에 현강왕이 오악신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오래전부터 산신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양사에서는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향토신제의 하나로서 오늘날 민간제의로 자리잡은 산신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찰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원하는 백양사 함월산 산신제에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사진
김정은 등불 편집실

나눔의 행복 함께 키우는 참 인재 불사의 도량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1949년 9월 이서고등공민학교가 개교했다. 3년 뒤인 1952년 이서중학교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66년 1월 17일 마침내 이서고등학교(교장 김기본)가 설립인가를 받고 고등교육과정이 별도로 개설됐다. 사립학교로 개교한 이서중·고등학교는 이후 개인과 재단 등 4차례나 학교운영 주체가 바뀌는 경험을 해야 했고, 2011년 9월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학교법인 무일학원이 운영재단으로 들어섰다. 또 하나의 불교종립학교의 탄생이었다. 표류하던 일반고등학교가 부처님 품으로 들어선 것이다.
2월 26일 관세음보살 입상이 조성된 학교는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굳히게 되었다.

청도 이서고등학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기숙학교다. 청도군 이서면 한적한 시골길 위에 교사가 서있다. 그 인근이, 오래전 학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으로 '학암언덕'이라 불린 자리란다. 교정에 들어서면 졸업생들이 기증한 '학 바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교조敎鳥도 '학'이다.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추앙받고 신뢰받는 선비의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의미이다. 여기에 무일재단이 들어서며 계정혜 삼학이 보태졌다. '아름다운 행동(戒), 맑은 마음(定), 밝은 지혜(慧)'가 중·고교 공통의 교훈이다.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중학교에 비해, 이서고의 발전은 비약적이다. 무일재단이 맡은 후, 시설면이나 학사지원면에서나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독서실, '학생들의 식사와 수면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재단의 방침에 따라 리모델링과 재정비를 마친 기숙사와 급식시설 및 각지의 영양사들이 견학 오는 식사수준, 외부강사 초빙을 통한 야간 특강 활성화, 40여 개에 달하는 학습동아리 운영은 물론, 연간 1억 여원을 넘는 재단 장학금을 비롯, 수 십여개의 외부장

학 지원으로 학생들이 오로지 학업과 진로방향 설정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학력향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재능·특기 개발과 '폭력·체벌·따돌림 없는 학교'의 3無운동, '폭행·음주·흡연·절도·욕설 없는 학교'의 5無운동을 전개하며, 동시에 올바른 인성 기르기에도 매진하고 있다.

타종교 학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학생이 동참하고 있는 불교 학생회 '보리수'는 자율참여를 전제로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된 주인의식 함양과 지혜로운 사회구성원 양성을 지향하는 이서고 인성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 신행참여도가 높은 것은 물론, 지역사회 나눔 일꾼으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학기초 신입생환영법회 및 꾸준히 신행을 이어온 학생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매해 부처님오신 날에는 연등을 제작하여 교내를 장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대관음사 합창단과 합동으로 대구TBC 방송에서 초파일 특집으로 마련하는 1시간짜리 생방송 무대에 올라 찬불가 공연에도 참가하고 있다.
하계·동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캠프 및 사찰순례를 통해 야외활동으로 다져지는 우의를 도모하고 통도사, 불국사, 대관음사 감포분원 등을 참배하며 사찰문화와 불교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수능 백일을 앞두고는 특별한 기도가 이어지는데, 바로 매일 교내 명상센터에서 108배를 올리는 것이다. 21배를 시작으로 점점 횟수를 늘려가는 100일 기도에는 회향까지 평균 30여 명을 웃도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 이서중·고등학교 김기본 교장

나눔 활동도 활발하다. 한국불교대학에서 펼치고 있는 무료점심 봉사와 영천노인요양병원 봉사활동에도 매 학기 2회씩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체육대회에서 네팔 지진피해 아동돕기 모금 바자회를 연 이서고 학생들은 이날 모인 70여만원에 달하는 모연금을 국제구호단체인 NGO BUD에 전액 기부하는가하면 이 밖에도 매년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를 진행하여 네팔 지역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2월18일에는 지역 내 경로당 40개소에 전달할 라면 40박스를 이서면에 전달했다.

올해 학암축제와 체육대회에서는 바자회 규모를 좀 더 키우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기쁨을 맛 본 이서인들의 자비행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기본 신임 교장이 이 곳에 부임해 온 것은 30여 년 전이었다. 몇 차례 학교 운영 주체가 바뀌는 상황을 목도했고,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분쟁으로 그늘지던 시절도 함께 했다. 그러기에 불교계 학교법인인 무일재단이 이서중·고등학교 운영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다. 인재불사라는 굳건한 원력으로 이서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무일재단의 운영방식과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직접 경험하며 신심은 절로 났다.

앞으로는 교직원 불자회 구성, 불교 동아리 활성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운영 등 종립학교로서의 위상 재고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오래된 교사校舍이지만 최고로 정비된 학습환경과 생활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이기에, 김 교장은 사랑과 열정이 수반된 '따뜻한 한마디, 미소,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 나날이라는 김 교장에게 있어 이서중·고등학교와 학교법인 무일재단과의 만남은 '참 좋은 인연'이 그대로다.

(이서중 · 고등학교 : 054-372-4594)

취재. 글
김윤희 등불 편집실

서출동류수 안고 토실하게 익어가는 도량

울주군 두서면 죽림정사

치문緇門으로 익혀 기도로 익고 행行으로 빛나는 구과스님

'나갔다 다시 돌아오지 말라' '스승을 바꾸지 말라' '결혼해 다시 오지 말라' 석남사 공양간 부뚜막에 앉아 치문의 주요구절을 뼛속 깊이 새긴 한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
은사스님의 이북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해 시봉을 잘못한 벌로 가사와 장삼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러나 꿋꿋하게 살아냈다. 단 한 번도 그런 은사를 바꾼다는 생각은 내지도 않았으며 주어진 죄과는 분명하게 치렀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호된 시자생활을 여러 해. 모든 대중들은 그를 알아줬고 혹독하다는 강원시절도 너끈히 살아냈으며 강원을 마치고 주어지던 100일간의 3천배도 거뜬하게 회향했다.
세월 지나 출가 30년을 훌쩍 넘긴 지금, 중진스님으로 자리한 그는 종단의 주요소임 중 하나인 한국전통문화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종회의원으로도 활동한 수좌출신 구과(죽림정사 주지) 스님이다.

'한 시절 가열차게 정진한 기운으로 이 시절을 살아가나 보다.'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구과스님이야말로 그런 댓가로, 그 성성했던 출가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죽림정사는 지난 연말, 통도사의 말사로 등록을 마친 소박한 사찰이다. 그곳의 주지 구과스님은 죽림정사와의 15년 된 인연담을 들려주는 것으로 기자와의 담소를 주도했다.

동네의 막다른 위치에 있던 집을 지중한 인연들의 설득(?)으로 인수하게 되었고 더욱이 출가본사인 석남사와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고.

몸이 좋지 않아 들어간 그곳에서 스님은 서출동류수를 목격하고는 그곳에 정을 붙이게 되었으며 지중한 인연이 있었던지 지리산에 모셔질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인연이 주어지더란다. 그해 봄, 초파일을 맞게 되었는데 마당에 빼곡히 걸린 연등은 여러 면에서 좋은 예후였다. 건강이 회복되었고 몸의 회복과 함께 불교학교를 운영하여 5기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3~4년을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다.

이후, 스님은 위덕대에서 화엄학을 접했고, 다시 경주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며 선학을 익혔다. 그것은 출반 도반은 아니나 울산불교대학에 강의를 하며 맺은 재가 인연이 스님에게 공부인연을 지어준 셈이었다.

그러나 역시 낭중지추囊中之錐였다. 석남사에서는 교무와 총무 소임 등을 스님에게 맡겼고 출가본사에서 살던 시절, 어른들에게 입은 은혜는 소임을 보는 일로 대신함이 옳았다. 소위 토굴과 본사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한 셈이었다. 그러니 주어지면 주어짐에 따라 순응할 줄 알았고 그 역할에는 한 치의 소홀함을 보이지 않는 성품이었던 것이다. 하여, 크게 자랑할 것 없던 죽림정사도 손을 봐 가며 부처님도량으로 지켜내야 했고 출가본사인 석남사의 소임 역시 최선으로 임해야 했다.

사람에게는 그가 지닌 도량만큼의 과제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구과스님 역시 그걸 비켜가지 못했다. 종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화산 한국전통문화원장의 소임에 맡겨진 거였다. 1년을 살았다. 체제와 시스템 정비, 인적 관리 등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시간이 주어질 때면 끊임없이 풀을 맸다. 운영자의 논리가 아닌, 다소 객관적인 위치에서 전체를 보고자 했다. 물론, 여름부터 늦가을로 이어지는 빼곡한 일정 소화는 직원들과의 역할분담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기도 했다. 그렇게 2년 소임을 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구과스님의 역량에 박수를 보냈고 연임을 요청해 온 것이다. 그랬으니 죽림정사에 머무는 시간은 절로 줄어들었고 마음을 잡고 기도에 임하기란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석남사의 가풍은 승가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반드시 매일 3천배를 백일 간 해야 합니다. 전 그 백일기도를 도반과 함께 경기도에서 했으며 백졸스님이 계신 부산 옥천사로 옮겨와 나머지 기도를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선, 능엄주 108독을 매일 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여일하게 됐던지 마치 꿈을 꾸듯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백졸스님이 부르시더니, '느그 화두 있나?!' 하시는 겁니다.

순간, 뒷덜미가 오싹해졌고 도반과 나의 대답은 '스님, 내일부터 능엄주 200독을 해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50독만 더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듯 제 기도는 주어지는대로 내 마음이 일어나는대로 원 없이 했습니다." 라며 기도가 일상이던 때를 회고했다.

그러니, 객이 찾아간 날에도 자비도량참법 7일 정초기도에 여념이 없던 스님의 기도는 '그냥 할 뿐'이라던 어느 스님의 공부 얘기와 같은 맥락이었다. 모처럼 죽림정사로 돌아와 걸림 없이 기도에 임하는 '본래 그 모습'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는 "첫째 일요일 법회가 죽림정사에서는 정기법회일입니다. 그날 만큼은 꼭 죽림정사에 머물며 신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격의 없는 모습으로, 아주 낮은 곳까지 보듬는 '우리스님'으로요."

잘 정돈된 소박한 법당에서 피어나는 참회의 기도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크거나 작은 발원, 넓고 낮은 요익의 소원이 '참회'라는 기도로 꽃을 피울 요량이다.

가는 빗속을 걸어 나와 동네 어귀까지 배웅을 나온 스님에게 물었다.

"은사이신 원광스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확 와 닿았습니다. 스님~"

"들켰군요. 은사스님께서 구순을 넘기신 세수에도 저리도 잘 살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주신 어른이십니다.

"내친 김에 감사의 인사를 더 드린다면, 인홍스님, 백졸스님, 도문스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범어사의 지유스님과 행정 소임의 면면들을 경험하게 해 주신 통도사 주지스님께도 늘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철스님께서 방바닥에 던져놓은 법명 가운데 집어들었다는 법명, 구과.

그 이름값을 다 한 단단한 승가 있었노라 후일, 누군가 그렇게 기탄없는 덕담 풀어내지 않겠는가.

(언양 울주군 죽림정사 : 052-254-4801)

글.
구경미 통도사어린이집 교사

나도

이제 형님이 되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 친구들은 추운지도 모르고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스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리러 다녀왔어요.

큰 스님께 삼배로 새해인사도 드리고 두 손 가지런히 모아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라는 덕담을 경청하며 의젓함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샌샌님(선생님)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세배 드리는 모습은 조금 서툴고 언제 일어서야 될지를 몰라 엎드려 주위를 살폈지만 어른들께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답니다.

언제 이만큼 자랐나 싶을 정도로 의젓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며 유치원 탐방에 나선 우리 아이들.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어 하며 몸과 마음이 들썩! 들썩! 하였어요.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인사하며 잘 지내겠다는 다짐도 해 보았답니다.
멋진 통도사 어린이집 친구들~ 언제나 선생님이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단다.
사랑해.

구술. 원상스님
정리. 박찬일
사진. 최배문

두부
豆腐

두부는 순정하다. 절집의 밥을 책임진다. 하얗고 부드러운, 그것은 어미의 마음과 젖을 닮았다. 삼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 복장의 덕인 듯하다. 두부豆腐는 썩 올바른 한자어는 아니리라. 부腐는 고기가 곳간 아래 썩어(또는 발효)되는 모양을 의미하는 상형문자에서 왔다. 콩도 단백질이지만, 태초의 성질이 다르다. 누가 그 부 자를 썼을까. 이걸 옳게 가리자고 풍부할 부富로 쓰는 이도 있다. 쓰건대, 발효된다는 뜻의 부腐는 두부가 만들어지는 물리화학적 성질의 이름이고, 풍성할 부富는 두부의 넉넉한 성품을 말한다고 새기면 될 것 같다.

절에서 두부를 만든 것은 오래 전의 역사다. 콩은 보관해 두어도 잘 상하지 않고 두고 먹을 수 있었다. 지금처럼 풍요의 시대가 아닌 오랜 인간의 역사에서 수도 공간에서 만드는 두부는 그야말로 성찬이었을 것이다. 두부를 만드는 건 큰 제사와 공양에서 비롯한 발심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도 몇몇 고찰에서 두부를 만들고, 그 기술과 뜻을 내리물림하고 있다.

물론 우리 통도사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 조포사造泡寺는 중요한 사찰이었다. 사전에는 능陵이나 원園에 딸려서 제향祭享에 쓰는 두부豆腐를 맡아 만드는 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뜻을 넘는 다채로운 의미를 절이 안고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불교의 정신이 두루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문난 두부에는 이태조의 정비 한씨의 능원인 개성 제릉의 조포사였던 연경사의 두부와, 세조의 능원인 광릉의 조포사였던 봉선사 두부처럼 절 이름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초기에는 희귀식품이었던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오로지 사찰에만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잘먹고 잘사는 법〉 채경서, 김영사 간)

두부는 단백질의 보고다. 도 닦는 스님들에게 금지된 보양으로 최고의 덕이었다. 당연히 스님이 잘 만들었을 것이다. 두부는 현대에 와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간수를 쓰는 법, 열을 이용하여 굳히고 내리는 방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표준화 된 응고제를 써서 산업화 된 두부를 많이 먹지만, 과거에는 손맛이 살아 있는 두부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그 특별한 기술을 존중하고 물려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언젠가 강원도 강릉으로 두부 만드는 걸 보러 갔다. 기술자가 흔쾌히 스님께 현장을 공개했지만, 서너 시간에 이르는 제법의 온 과정은 결코 단순치 않았다.

자, 두부를 만들어본다. 먼저 좋은 물이 있어야 두부가 좋다. 물을 가리고 고르는 일이 먼저다. 그러니 산사에서 좋은 두부가 나올 환경이 된다. 물론 우선은 콩이다. 잘 자라고 깨끗하게 갈무리 된 콩이라야 두부가 올곧다. 그런 두부는 좋은 물에 불리는 일로 시작된다. 계절마다 불리는 시간과 감이 다르다. 두부는 수분이 많은 음식이니, 물로 불린다는 건 곧 두부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게 불린 두부를 가는 것도 심상치 않다. 갈아서 콩물을 내야 하는데, 이때 얻은 콩물이 곧 두부의 원천이 되니 그 어찌 단순한 일이겠는가.

통도사 두부의 전설은 이런 섬세하고 진중한 콩 다루기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콩물을 온도에 알맞춤하게 내어 응고하게 만드는 것이 두부의 품질을 결정하니, 이마에 진땀이 솟는 과정이다. 잘 젓고 불을 때서 두부가 잘 나오도록 한다. 이는 그야말로 '두부가 온다'고 해도 될 과정이다. 두부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두부 스스로 '온다'고 하는 것이다. 두부가 주체가 되어 대중들에게 온다고 함은 사물에 모두 불성이 있다는 일찍이 선사들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를까.

두부는 순두부(초두부라고도 한다)를 얻고, 또 잘 굳혀서 먹음직하게 만드는 과정이 마지막에 기다린다. 누르는 압력에 따라 두부의 경도가 결정되니, 이 또한 쓰임새를 따라 잘 시행할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온 두부는 갈무리를 잘 하여 제사나 공양에 그 쓰임새가 최고가 되도록 다들 애쓴다. 잘 만든 두부는 향이 있고 아름답다. 네모반듯한 모양은 기품이 있으며, 칼로 썰었을 때 부드럽게 잘리는 모양은 또 여유롭다. 입에 넣어서 넉넉하게 풀리는 맛은 또 어떻게 다 설명하리.

두부는 본디 전통적인 한식의 여러 요리에 쓰였는데, 이제는 더 가볍고 이국적인 요리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볍게 양념하여 샐러드로 내는 것을 시도해보았다. 두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는 요리가 되길 바란다.

글.
윤태환 한약사.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수석부회장

봄이 되면 겨울 동안에 움츠려 들었던 몸이 따뜻한 봄 기운에 적응 하느라고 나른해지고 기운이 쳐지게 마련이다. 예로부터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 신선한 봄나물을 캐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겨울 동안 쳐진 기운을 돋우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이른 봄나물이라고 하면 냉이가 먼저 떠오른다. 냉이는 향이 향긋하고 독특한 맛 때문에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어 왔다. 이달에는 냉이를 차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을 소개하여 냉이 차로 봄의 기운을 느껴 보고, 춘곤증도 이겨 냈으면 한다.

춘곤증春困症을 예방하는 냉이 차

한약재로써의 냉이는 제채薺菜라고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 의하면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고, 간肝의 기운을 이롭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오장五臟을 이롭게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냉이의 씨앗은 눈을 맑게 하며, 오래 동안 먹으면 사물을 선명하게 보게 된다고 하며, 뿌리는 눈의 통증을 낫게 하여 준다고 되어 있다.

또 잎과 줄기를 태운 재는 이질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의 다른 한약서에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 하면서 식채食滯를 삭인다고도 되어있다.

현대약리 실험 결과에 의하면 지혈작용이 있어 자궁출혈, 폐출혈, 유산출혈, 월경과다에 효과가 있고, 자궁수축작용과 심혈관 확장작용, 혈압강하 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식품 영양학 면에서도 풍부한 단백질과 칼륨,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A, B, C가 함유되어 있어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 만들기

1. 냉이를 뿌리 채로 캐서, 마른 잎은 제거하고 물로 뿌리의 흙이 완전히 제거될 때 까지 깨끗하게 씻어 그늘에 말린다.
2. 말린 냉이를 끓는 물의 증기로 초록색이 선명해 질때 까지 가볍게 쪄서 들어낸 다음, 다시 그늘에 말린다.
3. 쪄서 말린 냉이를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약한 불로 냉이 냄새가 날 정도로 덖고 나서 들어내어 식힌 다음, 밀봉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 두고 필요한 만큼 덜어내어 우려먹는다.
4. 우릴 때 사용량은 본인 입맛에 맞추어 양을 조절하고, 여러 번 우려 마셔도 된다.

통도사 www.tongdosa.or.kr

관음재일 법회 (2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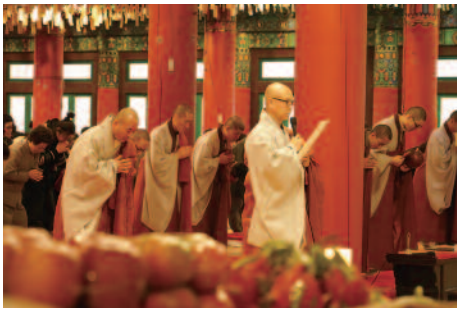
지난 2월 2일 관음재일을 맞아 전 송광사 강주를 지낸 도암스님이 불자님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불교대학 및 신행단체 방장 · 주지스님 신년하례 (2월 5일)

새해를 맞이하여 불교대학 및 포교국 산하 신행단체 임원들은 방장스님과 주지스님께 신년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수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초기도 회향 (2월 14일)

지난 2월 8일, 음력 1월 1일을 맞아 입재에 든 정초기도가 7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회향을 했습니다. 이날 법문에는 영축총림 율원장 우설덕문스님이 법사로 나서 기도의 공덕과 기도하는 마음가짐 등 불자의 신행에 대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지장재일 법회 (2월 25일)

2월 25일 지장재일(음. 1월 18일)을 맞아 보광선원 선원장 영일스님이 법문을 설해주셨습니다. 스님은 불자들이 지녀야 할 '본성' 에 관하여 심도있는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통도사 말사 주지임명

부산 백련화사 정명스님
울산 시 적 사 범초스님
부산 해인정사 수진스님
양산 보현정사 정수스님

통도사 본사 소임자 임명

사 업 국 장 석운스님
율원교수사 도암스님

통도사 내빈 방문

이채익 국회의원 내방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신임총장 이대원 내방
대한불교조계종 청년회 회장 및 임원 내방
울산불교여성회 임원 내방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 부산 경남 본부장 내방
울산불교교육대학 임원 내방
국회의원 윤영석 내방
울산공무원불자연합회 내방
국제포교사회 부산 울산 경남 지부장 일행 내방
경남 파라미타 임원 내방
부산지방법원장 내방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과 황우석 박사 내방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내방
양산경찰서장 내방
JCN 울산중앙방송 박재영 사장 내방
경찰청 기획조정관 내방
양산시청 공무원불자연합회 임원 내방

알림 : 종무소 이전

통도사 종무소가 지난 2월 24일 육화당에서 과거 종무소였던 명월료로 이전을 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종무 행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물관 www.tongdomuseum.or.kr

기도법회안내 : 인등 / 연등기도 : 3월 22일(화요일), 오후 5시 성보박물관 1층 중앙홀

3월 문화답사반 모집

금번 답사지는 부산〈정관박물관〉과 〈창원성산아트홀〉의 '안토니 가우디展' 입니다. 부산 "정관박물관"은 2015년 1월에 개관한 전국 최초의 삼국시대 생활사 박물관이자, 정관신도시 개발로 인해 고향을 떠난 주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자 하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오랜 고민 끝에 설립한 〈정관박물관〉은 지역 문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최근의 박물관 트렌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미켈란젤로라고도 불리우는 건축가이자 예술가였던 '안토니 가우디展' 은 대구에서 성료되었으며,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전시중입니다. 그의 작품은 기존의 양식이나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독창적이면서도 완성된 '하나의 세계' 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물이 가진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양식과 형식에 얽매여 평가를 내리고 마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는 '작품' 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이 오는 3월, 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걸음이 닿지 않았던 정관 박물관과 먼 스페인에서 온 예술가를 통해서 동 · 서양과 시대를 관통하는 전시의 즐거움을 맛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답사장소 〈부산정관박물관〉, 〈창원 성산아트홀〉 '안토니 가우디展'
- 답사일정 2016년 3월 30일(수)
- 출발장소 통도사 _ 산문 앞 주차장, 오전 8시 출발
  부 산 _ 온천장 역 건너편 홈플러스 앞, 8시 30분 출발 [시간엄수]
- 신청방법 전화 및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신 분에 한하며, 신청 혹은 입금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동참비 50,000원(간식 · 점심식대, 입장료 포함)
  새마을금고 : 9002-1537-6593-8. 예금주 : 통도사(통도사성보박물관)
- 문 의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 (055-384-0020 / www.tongdomuseum.or.kr)

날 짜	시 간	일 정	비 고
30일(수)	8:00	통도사 산문 앞 주차장 출발	출발
	8:30	부산 온천장역 건너편 홈플러스 앞 출발	
	9:30 - 11:00	정관박물관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22	답사
		점심식사	
	13:00 - 15:00	창원 성산아트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 -〈안토니 가우디展〉	
	15:00 -	출발	해산

※ 답사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15인 이하일 경우, 답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상반기 연수

- 교육일시 : 2016년 3월 6일(일), 7일(월) 양일간
- 교육장소 :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센터
- 교육대상 : 신규자원봉사자 및 기존회원

※ 자세한 사항은 통도사 성보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자비원 www.jabiwon.org

통도사자비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200여 분의 어르신들과 지역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80여명의 종사원이 최상의 서비스로 극진히 보살펴 드리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명절에 '추억의 윷놀이'

양로원에서는 명절 추억의 놀이인 윷놀이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다 함께 게임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명절맞이를 위한 어르신들의 꽃단장 '이 • 미용하기'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명절맞이를 위한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 · 미용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취향과 개성을 살려 각자 어울리는 모습의 머리로 새단장을 해주셨습니다. 명절에 깔끔하고 좋은 모습으로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어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여 만들어내는 '한지공예'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간보호 어르신들의 노인성 치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해 한지공예를 만들었습니다. 한지공예는 손과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심신을 안정시키고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꼼꼼하게 만들기 작업을 하였으며 각자의 개성을 살려 예쁜 작품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자비롭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자원봉사자모집 : 목욕, 청소, 이 · 미용, 보건 의료지원, 프로그램 진행, 각종행사지원, 말벗 등
- 물품후원 : 생필품, 의약품, 가전제품, 의복, 쌀, 간식, 기저귀 등
- 후원계좌안내(cms, 지로, 통장입금)

농협 : 813037- 51- 054104　　국민은행 : 666 - 01 - 0040 - 891

- 전화 : 055-385-2800(직통), 383-3999 / 팩스 : 055-381-2242
- 주소 : 우)626-86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72-3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곽연정 불교대학 토요 본과반

선인장에 꽃피우기

그해 매주 주말의 키워드는 힐링이었다. 일상을 벗어나 캠핑을 즐기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 안식을 얻었다면 SNS에 태그로 남기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내적치유의 대명사였다. 나 역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나를 기록하는 것인지 모르는 화면 속 공간에서 진정한 나를 바라보기에 갈증을 느낄 무렵 통도사를 밟았다.

목마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엄마의 권유였다.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기쁨과 설레임이 단조로웠던 일상에 활력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으며 통도사는 누구 할 것 없이 반겨주었다. 두해를 지난 오늘 나를 다시 돌아보려 한다.

생애 첫 108배. 두손을 모은 후 무릎을 땅에 닿게 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양손을 뒤집어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이 단순한 동작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행여 107배를 하지 않을까, 손 모양은 똑바로 했을까' 하는 생각에 숨이차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러던 여름, 모든 것을 비워두고 온전히 나를 위해 혹은 그 무엇을 위해 바닥에 닿았던 내 무릎은 한없이 가벼워졌으며 숫자를 셀 필요도 힘들 이유도 없었다.

"왜 해야 할까"에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기도 했다.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 마음도 몸도 달라지고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으니 한결 편해졌다.

그런 108배는 회개와 참회를 가질 수 있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닐지라도 무언가를 얻은 나는 한 템포 쉴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엔 평온이 자리했다.

평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건 템플스테이 중 새벽예불이었다. 장맛비가 내리던 여름 밤 설법전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예불의 그 울림이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놓았다. 잠을 이기지 못해 굽어있던 상체를 절로 세우게 해주었고 나를 일깨웠으며, 한편의 오케스트라를 듣는 웅장함은 오히려 쉽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로써 현대인들은 자신보다는 남에게 집중되는 시간이 더 많을뿐더러 정작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현저히 적다. 나 역시 바로 아니보고 모든 것을 작은 창으로만 바라봤던 거였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으로 보고 판단했던 어리석음에 창 공사를 하기로 결심했던 순간이다. 이러한 순간순간의 인식들은 인연이 되어 훗날 더 많은일에 보탬이 되리라 여겨졌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말이다.

사실 나를 휘감은 여러 집착과 이기심으로 인해 상대방을 찌르는 선인장이 되어 있음을 알았지만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는 초보운전자나 다름 없었다. 돌아가는 법을 몰라 정주행 했다. 이런 나에게 작은 지혜의 싹을 꽃피우는 시간들이 매주 기다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워 같은 길을 걷게 된 인연들을 얻었다.

이로써 스물아홉과 서른의 경계선에서 다시 달리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되었음은 분명 했다.

가시 많은 선인장이라 하여 꽃이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다. 하지만 선인장에 꽃을 피우면 더 행복해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미생인 나는 더 많이 나를 꽃피우고 신행하기 위해 오는 주말 어김없이 고속도로에 오른다.

월간 등불, 아름다운 법보시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자랑입니다.

월간 등불을 법보시하는 일은
법공양의 실천입니다.

월간 등불을 후원하는 마음은
불법을 홍포하는 문서포교의 불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월간 '등불' 이 있습니다.

이달의 법보시 동참자

주지스님, 도문스님, 선본스님, 도안스님, 무위스님(양산포교당)
정진스님, 성법스님, 부산 원오사, 서일스님, 선다회 학생회
선다회 사범회, 적멸도량회, 통도사 포교사회
불기청광회 회원 일동, 통도사 수련동문회, 염불공덕회
템플봉사반, 사리탑봉사반, 바라밀다봉사회, 김현철, 최치민
임성문, 김원일, 박중현, 최서윤(을미생), 박태영, 김태윤, 최서윤
내원사, 박근택

매월 2만원 법보시 동참 바랍니다.(동참자 성함 게재해 드립니다)

月刊 등불

'법공양 마당'

장소 : 불이문, 산중다원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 등불이 '법공양 마당' 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경내에 마련된 등불 법공양 마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폭넓게 읽히는 월간 사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월간 「등불」 편집실에서는 10년 이상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고 발행해 온 소식지의 1년 정기 구독료를 5천원 상향 조정하여 2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발송료와 제작비 등 많은 부분 물가 인상이 있어 부득이 내린 결정이오니,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독자 여러분들과 불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월간 「등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선원에 입방 희망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통도사 보살선원이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나은 정진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방자격 : 70세이하(여)
※70세 이상은 선원장 스님과 면담 후 결정
정진시간 : 하루 7시간
방 부 비 : 대실 90만원, 출퇴근 40만원(1인 1실 규정)
연 락 처 : 055-381-0977 보살선원

'오다, 가다.
들다, 나다.'

산에 들고 산에서 납니다.
드는 자, 나는 자
무엇에서든 달라야 합니다.

"불자는 꽃을 봐도 관념이
달라야 합니다." 라는 가르침
받았습니다.
불자는 '자비慈悲' 입니다.

너그러움이 남달라야 하며,
애민히 여기는 마음 달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 섭수하는
자량 한껏 품어야 합니다.

그 도리 알기 위해 오고, 가며
들고 나는 것입니다.

선방의 해제가 그러했고,
강단의 졸업이 그러했습니다.
그 주인공, 지금의 '나' 이고
오늘의 '우리' 입니다.

졸업과 입학은 의식 그 이상입니다.
밥값, 이름값, 그리고 명분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도량을 밟고 살아가는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존귀한 '부처님' 이어야 합니다.

회원 구독료 안내

1년 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20만원으로 평생 등불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안내 (예금주 : 통도사)

국민은행 666-01-0060-891
농　　협 813015-51-082016
신한은행 140-000-925706

우편접수

50501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등불 편집실 앞 / 문의 : ☎ 055) 384-8380

※ 주소이전, 송금 온라인 등으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에는 겉봉투에 표기된 성명으로 해주십시오.
※ 우편물 배달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혹, 이사를 가시면 연락을 주시고 성금과 구독료 납부에 이상이 있으면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부처님께서는 법보시를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이나 군부대, 교도소, 학교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곳으로 영축총림 통도사가 발행하는 '등불' 보내기에 동참합시다.
※ 은행 입금분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혹, 누락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등불' 은 등불가족 여러분들의 투고로 만들어지는 월간 소식지 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편집실 이야기

월간 등불은 34여 년의 전통을 지닌 영축총림 통도사의 사보寺報입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여러 독자님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발행되는 불지종가를 대변하는 소식지입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맑고 아름다운 등불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의 참여와 독려를 바랍니다.

참여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1년 연장)
박명자

새로운 등불가족 되심을 축하드립니다(1년 신규)
임향희, 김인배

함께 하는 마음이 등불을 살찌웁니다(평생 회원)

영 축 총 림 통 도 사

보광선원 신축불사

영축총림의 보광선원은 통도사의 대표적 수행처입니다
그러나 수 백년을 지켜온 보광전 당우는 낡고 퇴락하였고 보궁기도와 법회로 인하여 정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도사는 방장 원명지종대종사의 원력과 사중의 뜻을 모아 정진에 진력할 수 있는 선원 건립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를 뽑는 선불장 불사에 동참하시어 총림의 당간을 높이 세우고 선풍을 일으키는 뜻깊은 일에 수희 동참 바랍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엄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우체국 611434-01-002199(예금주 : 통도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월간 등불. 2016년 3월 5일 발행 (통권412호) | 발행처.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전화 055) 384-8380 팩스 055) 382-7196